


#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이재인



 홍성문화원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이재인



 홍성문화원



## 소중한 자산을 위한 결정체

홍성문화원장 유 환 동



천년 홍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홍성군은 많은 충의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문화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비해, 아직까지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충의열사들의 발자취와 다양한 향토사료가 군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홍성문화원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향토사료를 발굴, 책으로 발간하고, 기록으로 보존,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제한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으로 아쉬움도 많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년에는 향토사료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약천 남구만 선생의 생애와 발자취’ ‘홍성의 옛길’을 조사하여 책으로 펴내고, 이번에 소설가 이재인 교수님의 발품으로 홍주의 산야가 지닌 특성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내 것의 소중함과 일상으로 존재하는 생물에 어떤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설가적인 시점과 구수한 문장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긍지와 자신감을, 기성세대에게는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랜기간 답사와 집필에 수고해 주신 필자 이재인 교수님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 洪州의 산은 곧 지상의 보고

소설가·충남문화관장 이재인

산은 엄마의 품이다. 신이 창조한 보물창고이다. 홍주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펼쳐져 있다. 그 산은 만물이 생존하도록 돕고 있다. 식물 뿐이 아니다. 크고 작은 동물들이 자연속에서 삶을 누리도록 물과 바람과 이슬과 공기 등 은전을 베풀어 준다. 거기에는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짜여진 매뉴얼이 있다.



그래서 예찬론자들은 산을 자연의 어머니라고 한다. 필자도 그들의 식견에 동의한다. 산이 있으므로 물도 있다. 물은 땅을 적시고 들을 가꾸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산이 이처럼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일 것이다.

산과 물이 없는 대지는 대지가 아니다. 그것은 사막이면서 죽은 땅이다. 물이 있는 곳이 옥토가 되고 집이 된다. 집에는 물이 있어야 식물이 산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정원은 우리의 이상이다. 이렇게 산과 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필수요건이다. 홍주의 산은 높지가 않다. 그러므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그 자연과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땅이다. 유익한 땅의 경계는 산이거나 물이다. 물길을 따라 필자는 인문지리 속의 여행을 떠나본다. 필자는 홍주라는 틀 안에서 산과 들, 물길과 역사를 돌아보았다. 부족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질정을 바란다.

2021년 12월 홍주성 안에서 저자 절

## 산에서 홍주의 역사를 읽는다.

산은 땅 위의 어머니이고 산은 지상(地上) 왕자이다.

어머니는 땅을 품고 땅 위의 사는 사람들의 양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날짐승과 가축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면서도 오만하거나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는다. 산은 왕자이면서도 겸손하고 온갖 기화요초(琪花瑤草) 기르면서도 교만하지 않다. 산은 약선 식물과 온갖 풀과 나무를 지녔으면서 자랑하지 않는다.

산은 부귀를 가진자나 천박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 말했다. 인자요산은 어진 사람이 산을 좋아하고, 산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다고 했다.

그렇다. 산은 세상의 번잡도 삭히고 오염된 공기도 정화시킨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산과 물과 들과 채소와 곡식을 만들고 인간에게 산을 다스리게 했다. 산은 물을 내려 골짜기를 만들었다. 그 골짜기는 개울도 만들었다. 골짜기는 시냇물을, 시냇물은 강물을 만나면서 바다를 향하는 꿈을 지니면서 흘러 흘러 바다에 이르른다. 물은 이렇게 산과 더불어 있으면서도 흐르고 흘러 인간이 살아갈 터전인 문화와 문명을 탄생시킨다.

## 산은 인간의 삶을 지켜주는 방책

산에서 내린 물은 이렇게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손짓을 한다. 그렇게 인간이 물에 유혹되었다. 그래서 마을이 끝길을 따라 형성되었고 그 마을은 물길을 만들어 논밭에 물을 대주었다. 그 물을 우리는 삶의 젖줄이라 하였고, 생명선이라는 중요성을 부여했다. 생명선은 음양오행에 따라 풍수를 구별하고 그곳에서 양택을 택하여 집을 짓고 전장을 다스려 곡식과 채소를 심고 거두어 저장하는 지혜를 습득했다. 이런 자유와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산에 산성을 쌓아 외적을 막도록 했다. 산성은 예부터 인간의 삶을 지켜주는 방책이었다. 아니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수호

대(守護地)였다.

이렇게 산과 물과 마을은 마침내 사람들에게 상호 환경적 작용을 한다. 산과 물과 자연적 영향으로 사람의 성정(性情)을 형성한다. 충청도 산은 거칠거나 모나지 않고 부드럽고 유순하다고 했다. 그래서 청풍명월(淸風明月)이라고 했다고 옛어른들이 지리지(地理誌)에서 밝혀주었다.

우리 인간들은 산과 물과 마을과 그 환경속에서 먹고 살면서 그 자연을 대책없이 파괴하는 오래된 습관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이 시간에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산천이 훼손되고 또 파괴되어 이제는 회복불능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위험신호를 보낸지 오래되었다. 세계 문명이 소멸되는 나라와 그 민족은 지나친 산과 물과 대지를 파헤치고, 나무를 베고 물길을 막고 도시를 형성하다가 마침내 궤멸을 자행하는 짓을 다 반사로 자행했다. 산과 물과 마을은 신성한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민족은 부흥했고 그로 인하여 부국(富國)을 이루었다. 이른바 생태계가 살아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다.

### 산은 오늘도 청정국가를 만든다.

선진국은 자연을 잘 다스리고 그 자연의 반응에 민감하다. 자연이 곧 우리의 몸이고 자연이 우리의 미래라고 단정한 겨레는 오늘도 청정국가로 세계인을 끌어가는 마력이 있다. 마력은 곧 재화이고 그 재화는 그 민족의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마침내 인간과 산과 물과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산은 역사를 안았고 산은 자원이 되었다. 이 자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혜택과 풍성한 삶의 터전을 만든다.

필자는 인간이 안고있는 산과 물과 마을의 취약구조는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밝혀 앞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그 관계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 홍주의 위치와 면적



### 홍성, 즉 홍주는 충청남의 서쪽방향

홍성은 충청남도 서쪽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동으로는 봉수산(鳳首山)에서 이어지는 봉우리와 반계천 즉 무한천이 예산과 청양 두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으로는 용봉산(龍鳳山), 홍동산(紅東山), 삼준산(三峻山), 그밖의 여러 산이 예산과 서산 두군과 접해있다. 남으로는 오서산이 청양·보령 두 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쪽으로는 천수만(淺水灣)을 사이에 두고 태안군 안면도와 마주한다.

북위 36도 40분, 동경 126도 45분 지점에 자리해있다. 극동은 금마면 봉수산이고 극서는 서부면 어사리(於沙里)에서 8리 떨어진 곳이다. 극남은 광천읍 장곡면 사이의 오서산이다. 극북은 홍북면(洪北面) 용봉산



(현재 홍성의 사진)

에서 6리 떨어진 곳이다. 전체 면적은 44,398제곱키로미터. 2021년 10월 1일 기준이다.

지금은 3읍 8면이나 조선시대에는 충청우도 으뜸인 고을이었다. 옛 홍주는 해풍(海豐), 홍양(洪陽) 있었으나 어느 시대에 이름이 명명했는지는 미상이다.

길을 막고 도시를 형성하다가 마침내 궤멸을 자행하는 짓을 다반사로 자행했다. 산과 물과 마을은 신성한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민족은 부흥했고 그로 인하여 부국(富國)을 이루었다. 이른바 생태계가 살아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다.

선진국은 자연을 잘 다스리고 그 자연의 반응에 민감하다. 자연이 곧 우리의 몸이고 자연이 우리의 미래라고 단정한 겨레는 오늘도 청정국가로 세계인을 끌어가는 마력이 있다. 마력은 곧 재화이고 그 재화는 그 민족의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마침내 인간과 산과 물과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산은 역사를 안았고 산은 자원이 되었다. 이 자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혜택과 풍성한 삶의 터전을 만든다.

필자는 인간이 안고있는 산과 물과 마을의 취약구조는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밝혀 앞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그 관계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 홍주의 지리학

### 홍주 땅에 무슨 식물이 살고 있는가?

생명체인 나무는 인류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긴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 함께 살아왔다는 것보다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

### 나무는 사람을 위하여 기둥과 가족과 열매를 제공

나무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하여 열매와 가족을 내어주어 허기를 해결하게 했다. 비가 내려 날씨가 굳으면 이를 피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인간은 집을 지었다. 집의 중요 목재는 기둥과 서까래가 되었다. 그것이 이른바 사람이 사는 집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낙엽이 지고 쓸쓸한 밤이 되면 나뭇가지 사이로 별을 불러들였다. 그것이 시들해지면 하늘의 숨이불로 또 다른 연출로 세상을 신비롭게 하곤 했다.

봄이 되면 잎을 띄워 연초록으로 대지를 물들이고 이윽고 꽃피워 새가 저귀는 봄은 낭만으로 인간을 초대하는 게 나무였다.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경건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했다 나무는 인간의 귀중한 동반자이고 동시에 반려자이기도 하다. 이런 나무들이 주위에 사람의 숫자보다 많다.

어느 저명한 유미주의자 이양하 수필가는 일찍이 이렇게 표현하였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구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파리 움짙 않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열고 돌 우는 동짓달 그 고독도 안다.” 라고 표현했다.

나무는 오늘도 어느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살고 있으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땅은 어딘가를 침묵으로 암시한다. 필자는 나무의 역할과 그 처소를 알리

고자 하는 소박한 꿈이 있다.

나무는 겨울철에 줄기가 마르지 않고 생명체로 남아있는 식물을 나무라고 정의한다. 나무들은 제각각 태어난 본적지가 있다. 우리의 이 땅에 오래오래 살아왔거나 까마득한 세월 속에 바다나 강을 건너온 이력도 있다. 이런 나무의 식물학적 통계는 대략 수백 종에 이른다고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나무들의 집산지와 나무살이를 알아본다는 것은 인문, 지리학적으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제 36년, 저들의 집요한 책략 속에 우리의 나무들도 자취를 감추게 되어 이들의 역사가 부재함에 서글픔이 앞선다.

나무는 인간의 삶의 현장에 함께 존재하였고 드디어 우리를 숲에 살게 하였다. 그 가지와 줄기와 뿌리로 필요에 따라 유용한 도구를 만들고 제작하게 되어 우리를 지키는데 임무를 다해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나무에 대해 고찰을 했다.

## 홍주 땅에는 물이 어디로 향하는가?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물이다. 물이 있는 곳이 오아시스이고, 인류는 오아시스를 찾아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여기에서 집단생활을 했다. 시내와 강과 바다가 있는 곳에서 젖과 꿀이 생성되고 인간이 태초에 여기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여기에서 살게 되었다. 아울러 이 시내와 강과 바다는 결국 적과의 싸움터였다. 상대방과 통상을 하므로 소통하고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여 인간 삶에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강과 바다는 마냥 필요한 좋은 자연은 자연만이 아니다. 강과 바다를 통하여 적은 침공해 왔고, 그로 인하여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주권을 했으며, 군수 물자를 약탈당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하계인 주역과 경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기존의 향토 사료와 변별력이라 하겠다.



## 목 차



오서산 018



용봉산 044



초롱산 056



봉수산 068



학성산 084



삼준산 112



월 산 126



청룡산 142



삼불산 152



남 산 168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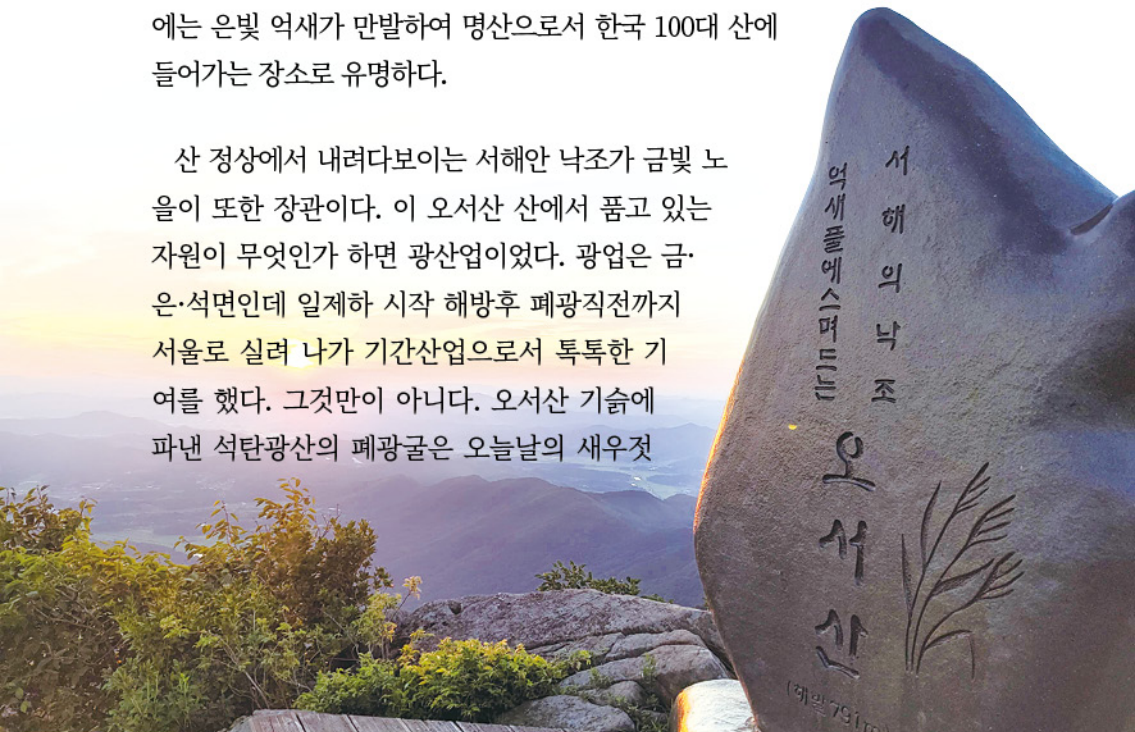
오·서·산

## 오서산은 홍주(洪州)의 자원의 보고

이 글을 작성하는 이 순간도 오서산(烏棲山)에는 많은 자원이 숨겨져 있다. 현재의 오서산은 백과사전에 따르면 해발 791미터의 산이다. 그러나 1925년 홍성군수 이민영(李敏寧)이 발행한 홍성군지(洪城郡誌)는 799미터라고 적혀있다. 일제하에 만들어진 계측은 오늘날 발전된 과학적 근거로 791미터가 정확하다고 볼 일이다.

그러나 이 오서산은 홍성군 광천읍, 홍성군 장곡면, 보령시 청소면, 청라면 그리고 청양군 화성면에 걸쳐져있다. 충남에서는 세 번째 높은 산이고 평택에서부터 서해안에서 제일 큰 산이다. 이 산의 외형적 특징이 바위산으로 봄에는 진입로 벚꽃이 만개하여 화사하다. 가을에는 은빛 억새가 만발하여 명산으로서 한국 100대 산에 들어가는 장소로 유명하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서해안 낙조가 금빛 노을이 또한 장관이다. 이 오서산 산에서 품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하면 광산업이었다. 광업은 금·은·석면인데 일제하 시작 해방후 폐광직전까지 서울로 실려 나가 기간산업으로서 특특한 기여를 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오서산 기슭에 파낸 석탄광산의 폐광굴은 오늘날의 새우젓



단지로서 국내 최대 출하지이다. 냉장시설에서 발효시킨 새우젓보다는 맛과 빛깔에서 단연 명성이 높았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대에 놀라운 발견인데 지금도 40여개의 토굴이 있다. 토굴 하나에서 1500개에서 2000개의 드럼통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인들에게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일제의 식민시대에 그들이 뚫어놓은 폐광을 지혜롭게 이용하게 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부단한 탐구정신의 소산이었다.

## 새우젓 시장의 시작



새우젓 시장의 활성화는 1960년대부터였는데 그 연유가 재미있는 사연이 숨겨져있다. 원래 광천의 관문인 용암 포구는 서해안 섬들의 유일한 통로 포구였다. 보령의 원산도, 태안의 안면도를 비롯한 서해안 섬들의 해산물과 어패류가 보령 오천항을 거쳐 용암포구에 들어와 광천장에서 팔았다.

## 산업화속에서 토굴 새우젓이 등장

4일이 광천 장날인데 이 날 장에 드나드는 장 배가 150여척씩 출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독배마을 포구가 산에서 흘러내린 흙으로 메워짐으로써 새우젓 시장이 쇠퇴를 거듭하다가 60년대 산업화 속에 토굴 새우젓이 발견됨으로서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폐광 토굴에서 섭씨 15도 전후에 온도를 유지하여 염장 발효시킨 새우젓은 그 맛이 자연적으로 인기가 높다. 서해 바다에서 포획한 새우젓은 맛과 품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므로 해외 수출로 외화 획득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그 역사를 통하여 증언되고 있다. 이는 홍주의 명품산업으로 1년 12개월 상설시장에서 소비자한테 반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상품으로서 으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 산은 귀중품을 안고 있다.



광천의 오서산은 동으로 청양군 화성. 남으로 보령시 청소면, 청라면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가 펼쳐져있다. 서남으로는 서해를 드나드는 배들

은 현재의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광천읍 오서산이 등대, 즉 나침반으로 삼았다는 일제 강점기 편찬된 흥성군지가 밝혀주고 있다. 산 중턱에는 정암사, 내원사 등이 있었고 지금도 그 사찰이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 오서산은 높이나 면적으로서도 서해안에서 명실공히 으뜸이 되는 산이다. 산이 명산으로서의 품격은 그 높낮이에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활용가치와 이용후생면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를 주느냐는 것 그 사실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오서산의 주된 정맥은 충북 보은의 한 줄기가 충남 천안에 이르러 우뚝 솟아올랐다. 그 산이 광덕산(廣德山)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주의 유구



1872년 지방지도 장곡면 일대

와 청양군을 거쳐 보령에 이르러 성주산(聖住山)이 된다. 이 오서산은 줄기는 보령, 청양, 흥성 3개군의 경계를 골고루 이루고 있다. 흥성군지에 의하면 이 오서산이 흥성과 청양사이를 안현(雁峴)이라고 동남쪽으로는 구불구불 뺨어 화성면 수정리에 이르러 독현(獨峴)이 된다고 한다. 북쪽을 따라 향하면 장곡면 대현리(大峴里)에 이르러 탄현(炭峴)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탄현리는 두 갈래인데, 그 한 갈래가 동으로 구불구불 돌아 산성리(山城里)가 있다.

## 오서산이 광업의 중심이 되다

오서산은 명실공히 금북정맥의 한 줄기로 서해안 내포에서는 가장 큰 산으로 자리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산은 아버지의 서랍처럼 보물을 골고루 간직하고 있다. 오서산 기슭 광천읍 일대에는 금은, 석



면 그리고 석탄 광산이 한때 성황을 이루었다. 그 석탄이 채광되던 굴이 폐광이 오늘의 새우젓 저장소가 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그러나 오서산은 식민지로서 엄청난 광업(鑛業)의 산지(產地)로 손꼽혔다. 논밭을 갈아 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가난한 농민들은 양식마저 일





제에게 수탈되고 백성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던 시대가 식민지 삶이었다.



### 금광 노다지가 광천에서

그런데 광산업은 농민들의 간고한 삶이 광부로 옮겨가는 변화의 현상이 일어났다. 식민지 시대 광천읍 당시에는 행정구역 지명이 광천면 웅암리에 광권업자 김봉제가 금광개발로 세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업자로 등장했다. 그는 광구면적이 자그만치 2만 천 평을 개발하는 허가권을 획득하여 이 일대에 금광업의 노다지를 확보했다. 일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중원금등(中原金藤), 십만 5천 5백평을, 복간지조(福間之助)가 2만 6천 5백 이십평의 허가권을 이용, 광천 일대의 금광을 개발하게 되었다. 금광이 개발되어 금이 채광되자 이 광천지역은 갑작스럽게 성시



를 이루었다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함바집, 독버섯같은 주막, 투전방 색주가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들을 광산업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친일파 건달들이 득시글거리는 주막거리도 생겨났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런 음지의 주먹잡이들은 이것으로 끝나는데 아니었다.

은(銀) 광산이 오서산 기슭, 광천에서는 채굴되었는데 이것도 일본인들이 광주로서 경제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광부들은 일종의 열악한 광부였을 뿐이었다는 것은 식민지사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광천에서는 사금이, 은하에서는 석면의 광맥이 발견되어 채굴되기 시작했다. 오서산에서 담산리 계곡을 흐르는 물은 지류와 지류가 합수하면서 너그러운 서해바다를 향하여 흘러내린다.

## 슬픈 폐광지역 추억의 풍경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인들에 의해 금광을 찾아나섰던 일이 수백건이나 있다. 충남에서도 광시에서 골드러시 행렬이 줄을 이었다. 김유정의 소설 3편이 모두 예산 광시에 금점 이야기를 픽션화 시킨 것이다. 「금따는 콩밭」, 「노다지」, 「금」이 1935년 6월 <중앙>에 3편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은 세간에 금을 찾아나선 이야기를 김유정 소설가가 아주 문학성 높고 소설화시킨 바 있다.

미국에서도 1864년 1월 24일 한 젊은 목수가 캘리포니아주 시크라먼트 강에서 금덩이가 든 광석을 발견하여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이것이 화제가 되면서 급기야 세계 각국의 이민행렬은 시작되었다. 이런 외국의 노동자들이 모여들어 미국 서부지역에 이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국같은 나라에서는 배를 타고 비밀리 불법 이민을 미국 서부로 유입되었다고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애리조나주 모하비 카운티에 작은 광산마을이 광맥 노다지가 발견되어 골드러시를 이루었던 과거가 있었다. 이제 미국의 골드러시가 황량한 폐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퇴락하기 전의 은성한 골드로드는 전달 투기꾼 주막집이 온갖 이민족의 노임을 착취하기 위한 폭력과 폭행을 일으키곤 했다고 미국의 광산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광부들이 떠나고 황량한 들판에는 광부들이 사용했던 노무기구들만이 녹슬은 채 서부시대의 건축물, 폐쇄된 갱도, 녹슨 발전기가 기록문화가 다가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문이 메일포스트와 함께 즐고있는 풍경을 필자도 탐방하여 읽은 바 있다.



지금 그 현장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광천의 폐광이 오히려 새우젓 저장고로 반전되어 오늘의 산업단지로 바뀐 모습은 세월이 무상하다는 점을 자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최대 금광인 금 생산지는 함경도 운산으로 알려졌지만 전남 해남의 모이산 금광은 2013년에 306kg 산출한 최대 금을 채취한 바도 있다. 경북 성주에서도 수륜산 광산이 가채 매장량이 184만톤이나 된다하니 그때 단일 금광중에 최대 금광이라고 한다.

금광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금광 스토리텔링을 해야겠다. 인천의 제물포 항이 개항되고 1년이 지난 후였다. 미국의 북장로회의 의료 선교사가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호러스 알렌이 청나라 상해에서 일본 나가사키 항구를 거쳐 조선 제물포를 향했다. 때마침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이때 명성황후 민비의 오라버니 민영익이 죽기전에 의료선교사 알렌이 치료하여 살려주었다고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가 [땅의역사]에

보고했다. 그 저서에 의하면 고종에게 알렌이 운산 금광 채굴권을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가 가지게 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 이처럼 골드러시는 선·후진국 경계를 넘나들면서 착취와 노략질을 서슴치 않았던 아픈 인류사가 있다.

## 오서산의 수목(樹木)

올해가 해방 76주년이다. 오서산도 나무들도 겨우 100년 안쪽의 나이를 지니고 있다. 식민지 시대, 더구나 아궁이에 나무를 때는 관습으로 너도나도 남발했다. 큰 나무들은 수탈되어 일본으로 실려나갔다. 그러니 1960년대 5.16의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집권으로 험벗은 산에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니 새끼 나무들이 자라서 이제 이 수림도 나이가 100여년 안팎이다.

지금 오서산 등산로에서 발견되는 나무는 다음과 같이 눈에 띈다. 소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비목, 서어나무 등이다. 이외 나무들은 사방사업으로 인하여 살아난 낙엽송, 왜송, 오리목 아카시아가 아픈 시대상으로 남아있다. 오서산을 제외한 결성의 청룡산, 은하의 지기



산 흥복의 용봉산도 대부분 해발 400미터 미만이다. 표고가 낮아 남벌되었기에 인공림만이 아픈 과거를 침묵으로 삼키고 있다.

오서산 골짜기를 적시면서 흐르는 물소리는 지금도 나그네 마음을 쇠락한 기분으로 만들면서 새우와 망둥이와 조개가 풍년인 서해바다로 흘러간다. 계곡물도 흐르고 시냇물도 흐르는데 어찌 세월이 흐리지 않으리라...

### 오서산의 약초와 식물(1)

오서산에는 많은 약초가 성장하고 있다. 아래로부터 해발 400미터까지는 주로 자생식물인 구절초가 자리를 잡고 있다. 늦가을 접어들면 향기질은 구절초가 청초한 자태로 꿀벌들을 불러들인다. 꽃의 향기는 모두가 인간에게 향기와 더불어 추억을 남겨주는 경우가 많다. 구절초 꽃은 하얀하다. 백색이므로 순결하고 청초하여 꽃말이 “순결”로 전해지고 있다. 구절초가 음력 9월 9일이면 아홉 개의 마디가 생겨 아홉 번이나 꺾인다 하는 풀로서 “구절초”라 한다고 전해진다.

이 구절초는 약용식물로서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물이다. 「동의보감」에 복부의 어혈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기록되었다. 특히 소화불량 월경불순 자궁냉증 위냉에 효능이 있다고 서술되어 한약





재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한다. 구절초는 성질이 따뜻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어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한다.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없다. 그러므로 간경화 작용에 좋다고하여 한방과 민간에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광천의 오서산 구절초는 바닷바람을 마시고 생장한 약초이므로 약령시장에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항염, 항균, 면역증진과 피로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강장은 심장, 간, 비장, 오장을 튼튼히 한다는게 한방의 사의 처방에 적혀있다. 그러므로 오서산은 그냥 억새와 숲이 우거진 그냥 산이 아니다. 많은 약선 식물이 우리들의 건강을 보충해주는 건강지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구절초는 사람의 심성과 추억의 길로 안내하기도 한다. 여기 대중가요 “그대는 구절초였지”가 오서산 기슭의 담산리에 살던 한 청년의 고백을 노래했다.

구절초 피고지는 산마을에  
옛사랑 잊지못해 나는왔네

그대가 살던집에 빨래터에  
보는 이 없는데도 구절초는  
오늘도 피었다고 하늘대네

나는야 오늘에도 잊지못해  
오서산 담산리를 찾아왔네  
보고픈 그대얼굴 구절초가  
내고향 솔바람에 눈물짓네

## 오서산의 식물(2) 참나리꽃

영원불멸의 생. 진시황이 꿈꾸던 영생불사의 생약초의 으뜸으로 삼았던 식물이 “참나리꽃”이라는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의 「漢方食物」이라는 곳에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 목록에 참나리꽃 뿌리도 있다. 참나리가 오서산 기슭에 많다는 것은 필자가 학생조사단을 앞장서서 찾아낸 결과이다. 이 참나리 여름철 7월이나 8월 초순에 발견하기가 쉽다. 특히 눈에 잘 띄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룬다. 붉은색은 사람이나 짐승, 조류의 눈에 잘 드러난다. 붉은 색 식물은 호랑나비나 벌들의 시야에 식물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잘 눈에 띈다. 그래서 위험을 나타내거나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드러내기 위하여 붉은색의 <주의>, <위험>, <STOP>표시가 붉은 색깔을 사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붉은 색깔을 지닌 씨앗이나 과일들은 그 색깔 자체로

식물에게 다가오도록 유혹하는 생리를 지니고 있다. 식물 열매가 푸른 열매로 녹색에서 익게되면 붉은빛갈로 변색을 한다. 이는 각 새나 동물들에게 먹음직 보암즉하게 보여 이를 먹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다. 동물들은 주로 과일을 통째로 먹는다. 우리가 참외나 토마토처럼, 동물의 씨앗이 뱃속에서 소화기관을 통해 배설하면 이게 널리 퍼져 자생력이 강한 식물로 번성한다.





### 참나리 붉은색은 가루받이 역할

동물 가운데 원숭이도 빨강계 익은 과일을 보면 군침이 돈다는 과학적 논거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도 주로 붉은색이다. 아니 맥도날드, 중국집도 예외는 아니다. 식욕을 돋구는 색이 바로



붉은색이다. 참나리 가루받이 매개 역할은 호랑나비라는 곤충학자나 생물학자 주장에 이론(異論)이 없다. 참나리는 키가 크고 붉은 색깔을 지니고 있으므로 호랑나비한테 자극적인 색깔이다. 수려하게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점에서는 자기 종족보존의 생존 유전법칙이다. 참나리 가루받이는 호랑나비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참나리는 아래를 향해 꽃을 피

는 생리가 있어 호랑나비가 꿀을 빨기 어렵다. 거기에다 수술이나 암술은 불쑥 내밀고 있다. 참나리꽃 꿀을 찾아와 참나리 꽃술을 발판으로 삼아 매달려 어렵게 꿀을 채취한다. 그 큰 날개를 퍼덕이면서 힘든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호랑나비 몸은 참나리꽃 꽃가루가 묻어난다.

호랑나비만 참나리의 꿀 도둑이 아니다. 참나리 뿌리에는 전분질이 풍부하여 멧돼지가 이를 알고 뿌리를 공격하게 된다. 참나리의 뿌리는 덩이뿌리 아래쪽으로 나오는 뿌리의 덩이뿌리 위로 나오는 뿌리가 있다. 물이 영양분 흡수하는 것은 위로 나오는 뿌리이다. 아래로 나오는 뿌리를 우리는 “견인근”이라 한다. 문자 그대로 끌어들이는 뿌리이다. 땅속 깊이 뿌리 뺀 뒤 움츠러들어서 줄기를 땅속으로 끌어당긴다.

참나리를 백합(백합)이라 하는데 이는 덩이 뿌리가 수많은 껍질 비늘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 참나리의 특징

꽃은 줄기는 아래를 향해 핀다.

주황색 꽃잎에는 바탕이 흑자색 반점이 있다. 꽃잎이 뒤로 헤어진다.

꽃은 6장이며 수술은 6개, 암술은 중앙부분에 1개가 있다.

꽃이 진 다음에는 열매가 맺힌다.

잎겨드랑이에는 영양생식체인 주아(珠芽)가 달린다. 이것은 콩처럼 맺혀져있다가 땅에 떨어져 발아되는 속성이 있다.

꽃말은 순결, 한방에서는 참나리(비늘줄기) 열병, 해수 폐결핵 등 쓰이는 약재이다.

## 참나리는 그 뿌리에 포도당, 비타민 C가 함유

안뿌리에는 녹말 단백질 지방포도당,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  
 우리 조상들은 배고플 때 뿌리를 캐어다 쌀이나 보리 죽을 끓였다.  
 봄에 나오는 어린 순은 나물로 무쳐먹었다.  
 꽃잎으로 술을 담그며 빛깔도 곱고 아름다워 가격이 높다.

이런 참나리 꽃이 오서산에 지천으로 피고지는 7월이면 왕매미 소리  
 도 점점높아지고 8월이면 스르람 매미소리가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 젓갈시장의 특성



광천 독배마을

김장철이 되면 가장 붐비는 곳은 젓갈시장이다. 수도권에서는 소래포구가 으뜸이고 광천 젓갈시장은 충청권에서는 전국제일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면 발효식품인 광천 젓갈이 왜 유명한 것인가는 연구해야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만큼 젓갈에 대한 내공이 필요하다는 이

야기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공인을 받은 김치가 세계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통장류, 민속주, 식초는 다른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의 독(옹기)을 이용한다.

### 광천새우의 발효법은?

이는 자연의 소재와 기후와 토양에 대한 지력을 이용하여 담아내는 지혜와 슬기의 소산이다. 다시 말하면 공장식(工場式)이 아니고 자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색이 있다. 특히 광천새우의 발효는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건강한 토양에서 얻어진 생산물이어야한다. 원료의 신선한 채취와 계약 생산이 주 요소이다. 발효식품에게 필요한 자연속의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중시한다. 뛰어난 지혜와 슬기를 발휘해야한다. 이렇게 발효된 것같은 정성과 청결과 인내에 의한 신선한 식품들이다.



## 새우젓의 종류

새우젓 종류에는 나뉘어 세 가지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다.

육젓 - 어부가 잡아다 시장에 넘긴 것을 받아다 발효시킨 것인데 새우의 몸피가 옹골하게 살이 찼다. 몸통이 크고 탱탱하여 국물까지 맛있어 식감이 좋다. 새우젓 가운데 최상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오젓 - 어부가 바다에서 5월에 잡은 새우로 숙성시킨 것이다. 새우의 육질은 육젓보다는 약간 작다.

추젓 - 추젓은 어부가 가을에 잡은 새우를 숙성시킨 상품이다. 새우젓이 보기에 부드럽고 식감도 좋다. 육젓과 오젓은 김장에 주로 쓰이고 추젓은 밥상위의 반찬에 사용된다. 이 새우젓은 섬씨 13도에서 15도로 숙성에 최적의 자연 발효된 상품이라고 주장한다.

## 다시 오서산과 광천(廣川)

오서산은 그냥 오서산이 아니다. 광천이란 내가 있으므로 오서산과 짝을 이룬다. 「신증동국여지승람」(1481~1530)에 보면 경성군 산천조와 역원조에 보면 결성의 하천조에 대한 항목에 ‘광천은 현 동쪽 25리에 있다’ 밝히고 있다. 광천은 근원이 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는 흥주 오사리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오서산에서 나와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간다고 되어있다. 역원조에는 해문역(海門驛)이 1415(태종 15년) 처음 설치되었고 광천원(廣川院) 광천 기슭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바다로 오고가는 역말이 존재해 있었고 역말인 광천원이 있었다는 기록이 「대

동지리」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광천을 원촌(院村)지명이 나타나 있다. 원촌은 지금의 원촌리이다. 원촌리는 이동하는 관원들이 도로와 인가가 드문곳에 국영 식숙(食宿)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보통은 역과 역 사이에 교통지리상 요지에 두어져 지방통치와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게 했다. 조선시대에는 여행객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공무를 위한 관원들의 숙식도 맡았다. 그리고 보부상들 쉬어가는 휴식시설로도 이용되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도 금정찰방으로 부임한 후 홍주와 결성에 들른일이 있었다. 그가 결성에서 바라본 오서산을 시로서 읊었는데 이동과정에 오서산을 아마도 들렀을 것으로 이 시가에서 나타나있음을 알 수 있다.



끝없이 넓은 하늘 맑디 맑은데  
 만 리 가을 허공에 바람이 이니  
 서울향한 그리움 사무치기에  
 발길들려 해변산 유람하였네  
 마음트여 교묘한 생각들고  
 몸 가벼워 오감이 한결 쉽구나  
 시내 꽃서리 뒤에 구경을 하니  
 깊은 시름 충분히 녹일만하네

광천이라는 말이 오서산에서 흘러내는 물이라는 말이었고 광천옆에 있던 역원(驛院)은 광천원이라 불렸으며 광천리는 후에 읍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광천지역은 별도의 군현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북쪽은 홍주, 서쪽은 결성, 남쪽은 보령에 속해있다.

## 오서산의 물길

### 광천천의 하계방

광천천의 시원(始原)은 매성봉에서 시작되는 남북방향산지, 오서산, 아차산 사이를 흐른다. 연변에는 범람원 충적지들이 형성되어 있다. 광천읍 시가지는 상정천과 광천천 합류부에 위쪽에 발달해 있다. 물이 흐르는 거리가 멀어야 그 물을 끌어들여 논밭에 작물을 심는데 오서산에서 흘러내리는 광천일대는 농사지을 땅이 절대로 부족하다. 해안이 가까워 해산물에 의지하여 생업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 반계천 길이는 충남에서 가장 길어

청양 화성 백월산과 홍성 오서산 동남쪽 자락에서 시작되는 장곡면 산성리 반계천은 그 길이가 충남에서도 가장 거리가 멀다. 무한천의 상류는 여양천으로 대흥면 시대에서는 경결천, 화성에서 산성리까지는 반계천으로, 나천이라고 불리고 반계에서 천태리까지에서는 여양천으로, 천태리에서 예당저수지까지는 무한천으로 수계를 이루는데 사실은 예산 현에서 삽교천까지를 무한천으로 구분하는 향토사학자들이 있다. 이는 근거가 있는 말인데 이를 증명될 수 있는 근거는 면지(面誌)나 군지에서 밝히고 있다. 반계천과 청양 비봉의 만경 뜰이 수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 백제시대 일만호가 풍요롭게 살았던 비봉에는 고급 관리들이 묶어가는 “연봉정”이라는 역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하계망이 멀수록 농업시대에는 부촌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서들평야



는 큰 산, 깊은 골짜기 넓은 들은 부국을 이루는 근원이 되었다. 그런데 조선 중기부터 정치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와 관원들의 부패로 인하여 일제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 그것이 임진왜란이었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우리 국토, 우리 앞마당에서 벌어졌다. 마침내 1910년 한일합방으로 대한민국은 식민지 국가로 36년이라는 뼈아픈 시대를 살아야 했다. 광천의 오서산은 그 현장에서 몸소체험했고 비극을 아로 새겼다.

## 에필로그

옛날에도 좋은 자연환경을 지닌 곳에는 이름난 선비들이 살았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의 요소이다. 특히 산이나 강이나, 계곡이나 바다도 한결같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인간이 개발이라는 미명아해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시키면서 국토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들도 자각하여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서산을 자연을 망치지 않는 친환경으로 개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명산을 지닌 광천시민들의 요람이면서 이 요람이 선진국 공원처럼 부가가치를 높이는 관광사업을 슬기롭게 품어가는 지혜를 짜내는 장기 개발 계획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과 더불어 부가가치 있는 산업을 궁구하는 게 곧 광천시민들의 절실한 숙제가 된 것이다.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용·봉·산



## 소금강 용봉산에 가면 용봉이 된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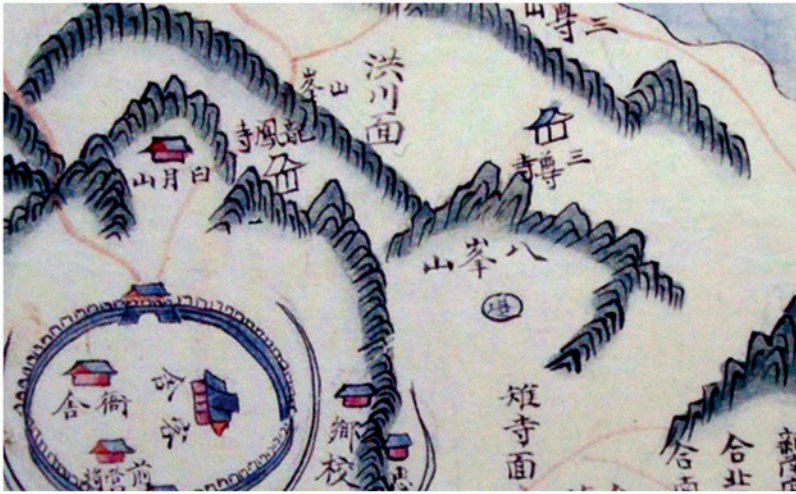
현재 중국이나 인도에도 없는 용이 새해에 흥성에 오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용은 관념상에 하나의 동물이다.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여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민간신앙에서 용봉산은 더욱 인기가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관광지마다 흥미유발을 위한 좋은 스토리텔링이 부여되어있다. 이는 듣기에도 엉터리로 건강부회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런데 용봉산은 산세가 용의 잔등처럼 휘어지고 굴곡지고 굽이굽이졌다. 그래서 소위 제2의 금강산이라고 입소문으로 알려져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웃 산이 금강산에 비유되고 등산객이 줄을 선다는 사실은 감동을 지나 감격해지는 느낌이다.

농촌이나 어촌이 어르신들이 자연 감소되거나 대처로 자식따라 이향하는 산골은 과장하여 적막하다. 그런데도 명절 첫날부터 용봉산에 오르는 등산객을 만나면 즐겁다. 아니 행복하다. 사람이 귀한 농촌이 되어 있으니 결코 나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 용봉산은 충남의 최북부에 위치해



해동지도 홍북면 일대

용봉산은 충청남도 최북부 홍북면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예산군 덕산면과 삽교읍, 서쪽으로는 구항면과 예산군의 덕산면, 동쪽으로는 금마면과 예산군 응봉면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홍성읍과 접하고 있다.

용봉산 높이는 해발 381m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산이다. 평범한 산이 금강산자락처럼 기암괴석이 요란하다. 용가는데 구름가고 범가는데 바람간다는 말이 있듯이 입립한 바위 사이에 소나무 등 각종 나무들이 고단한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모습도 등산객의 마음을 슬픔에 젖어들게 한다.

그만큼 바위 사이에서 고난으로 버티고 선 나무의 모습에 새삼 운명을 느끼게 한다. 발밑에 위태로이 얼굴을 내민 기암괴석은 볼거리로 사진작가들의 좋은 소재가 되어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집채만한 바위덩

이들도 생김새대로 술한 전설과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 같아 흥미롭다. 산은 특이하게도 산 전체가 바위로 덮여있다고 한다.

### 기암괴석으로 금강산 닮았다고

더욱이 용봉산 산성은 여러개의 봉우리를 이용하여 축성하였다. 서쪽 성벽은 용봉산의 정상부를 향하고 있고 동벽은 중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체적인 축조구성은 삼태기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용봉산성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돌을 모아 치석(治石) 쌓은 성이 아니라 자연지형을 이용했는데 성벽은 편축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형을 살리느라 일정구역은 협축(夾築)식으로 쌓은 곳도 많다고 한다.

성내의 지형이 가파르기 때문에 성내의 병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 않은게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산성의 축성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이 구전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 용봉산의 식물

용봉산은 서남해권에 속해있다. 이 산의 특수 나무들은 대나무류가 많다. 그리고 곰솔, 산초나무, 서철나무, 굴피나무, 팽나무, 동백나무, 단풍



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등이 주류이다. 특징적으로는 후피향나무, 녹나무, 동백나무, 감탕나무, 비자나무, 누리장나무, 붉나무, 두릅나무, 식나무, 때죽나무, 화살나무, 느티나무 등이다.

홍성군 구역에서 제일 높은 오서산(791m)을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해발 600미터 미만의 구릉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균 고도인 482미터에 훨씬 못미치는 평탄지역이다. 이에 서해안 지역의 식물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 하겠다.

## 용봉산의 물길

홍북면 하계망을 보면, 동부지역에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삼교천과 금마천이 있다. 남부지역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용봉천이 있다. 금마천과 용봉천은 동남부지역에서 합류하면서 대규모의 층적평야를 이루고 있다.

## 용봉산의 풀꽃 진달래

### 진달래가 바위틈에 홀로 뿌리를 내린 모습이 애처로워

진달래는 용봉산에만 사는 식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땅, 산과 들에도 잘 산다. 그러나 용봉산 바위 틈에서 홀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모습은 한편의 시처럼 가슴을 뜨겁게 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탄생된 것도 이  
 러 산악지대에 깨끗  
 하고도 고고한 자태로  
 피어난 모습을 보면서 시  
 화로 옮겨 온 것이 아닐까...

많은 식물들이 산야에서 홀로 피  
 고 지고한다. 그러나 진달래는 바위 틈에서 살면서 그 인적이 적은 속  
 에서 피어난 꽃이 더욱 귀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보기 역겨워 가  
 실때에 저 꽃진달래 꽃을 산산이 뿌린다는 그 행위는 무슨 사연일까.  
 아무튼 용봉산에는 바위가 많고 산봉우리도 금강산처럼 빼어나고 거  
 기에다 일망무제 시야에 들어오는 서들광문 예당 평야가 제2의 금강산이  
 라는 관사(冠詞)를 씌워주었는지도 모른다.

진달래는 두견화, 영산홍으로 불려왔다. 강원도와 경상도 지방에서는  
 참꽃나무, 백두견화라고 한다. 이 흰진달래는 꽃잎을 따먹기도 한다. 잎  
 은 약간 신맛이 난다. 이 꽃은 음식을 만드는 풍습이 있다. 옛날에 꽃잎  
 을 기름으로 짜거나 화전을 부쳐먹기도 했다. 진달래는 꽃과 뿌리를 섞  
 어 빻은 두견주가 약주로 쓰여 인기도 있다.

이 진달래는 낙엽 활엽 관목이지만 반상록으로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  
 는 것도 있다. 꽃은 3월이나 4월에 잎보다 먼저 된다. 꽃잎은 벌어진 깔  
 때기의 모양으로 지름이 3센티 4.5센티미터 정도이다. 색깔은 약간 짙  
 은 자줏빛이 도는 붉은 색, 아주 연한 색깔을 띠고 있다. 진달래는 관상  
 용이외에 식용 약용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한다.



## 용봉산은 산세에 버금가는 시들도 많아

용봉산에는 산세에 버금가는 옛 어른들의 주옥같은 시(시)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쯤되면 산이 명인(名人) 현자(賢者)를 모셔오는 셈이다. 그러니 산이 위대하냐, 사람이 위대하느냐는 질문은 어리석다. 위인이 머무르다가면 무명의 산도 금시 유명세를 탄다. 말하자면 유명한 학승 법정이 머물렀던 순천 불일암은 작은 암자였다. 그런데도 불일암은 불자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용봉산 어떤가? 용봉산 즉 명산 속에 용봉사라는 고찰이 있다. 이 고찰에 신자들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찾았고 또 찾는 명소가 될 것이다. 여기 다산 정약용이 쓴 시를 여기에다 옮겨보기로 한다.

서해의 지역이라 명산은 적고  
기름진 넓은 들만 깔리었는데  
뜻밖에도 본질을 탈바꿈하여  
머리 빗고 몸 씻어 평지에 나와

뭇 봉우리 드높이 솟아오르니  
가파러 투박한 살 털어버렸네

가녀링 꼴 금세 곧 소멸할 것만  
험난하여 또다시 삼엄한 느낌

놀란 기력 고개를 높이 쳐들고  
별난 귀신 옛보다 도로 앞드려

아침하는 간신은 참소 올리고  
경망한 아녀자가 독기 품은 듯

생김새 그야말로 특이하구나  
온갖 형태 보는 눈 휘둥그레져

따르는 중 나에게 말해주기를  
절간 하나 골짜기에 들어있구나

말을 내려 지팡이 들고 나서니  
관원 신분 생각을 할게 뭐 있겠나

긴 그늘 높은 언덕 내리 덮이고

비단 돌 시내 굽이 깔리었는데  
서릿발 살짝 덮은 드높은 바위  
푸른 대에 끼어든 붉은 담쟁이

절간이 나뭇가지 위에 나오니  
싸늘한 정경에도 반갑고 말고

노승이 하는 말이 절이 황폐해  
이틀 유숙 접대는 할 수 없다나

깨진 대흙통 물줄기 아직 남았고  
낡은 절간 단청빛 흐려 어둡네

절간 살이 내 이미 달갑잖은데  
어찌 굳이 종따라 죽을 마시랴

흰구름 산마루에 방랑을 하며  
숲나무 진동하게 노래 불렀지

그때 그 성대한일 감탄 겹치니  
오늘날 매인신세 가슴 아프네

나그네 몸이 되어 떠돌다 보니  
고독한 사람 찾을 틈이 없구나

이 때문에 또 깨친 사람이라야  
비로소 영에 치욕 같아지는 법



## 용봉사에 왔다가면서

다산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그의 사상과 학문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다. 이 글을 쓰실 때에 다산은 홍주목 관할 아래에 있는 청양에 소재한 금정역 찰방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때 이 용봉산을 유람하면서 용봉사에 들러 기행시를 남겨 우리들에게 그의 활달한 그의 기개를 엿볼 수 있어 행복하다.

다산의 시속에 나타난대로 용봉산 아래에 기름진 넓은 들, 비단돌 깔린 동네에 지금은 충청남도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이 산하 기관을 거느리고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 또한 21세기를 열어나가는 내포 중심시대가 아닌가 싶다.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초·롱·산



## 초롱산, 그 로맨틱은 아니다

초롱산 바라보며 큰 꿈을 심었더니  
문필봉 그 아래에 유문동 시인되고  
장동수 뒤따르니 이정록도 더 빛나

동쪽은 광시라고 누군들 지고싶나  
육석을 발간하던 서창남 님들아나  
명산에 초롱산이 배출한 인물일세

산마다 최고라니 초롱산도 있어요  
문필봉 골짜기에 여기저기 어진 삶  
모두가 키워낸 꿈을 이루어서 만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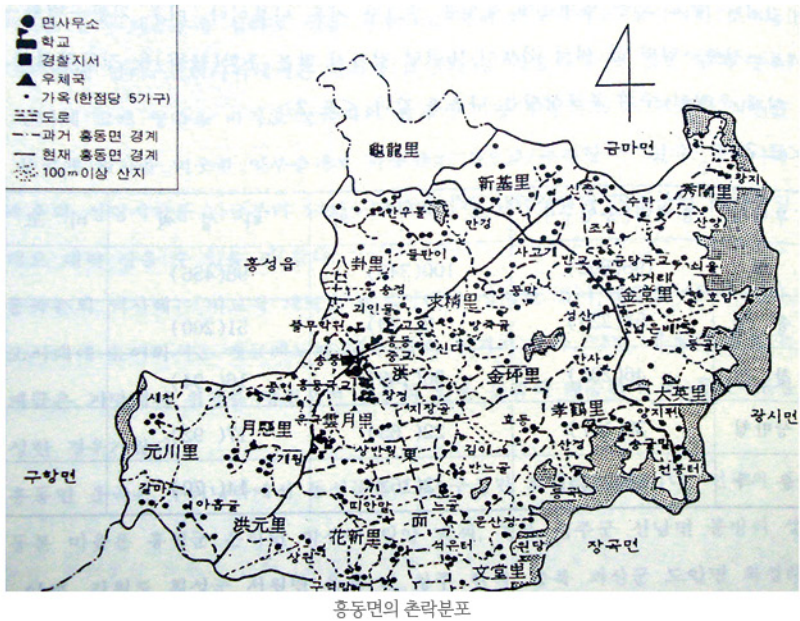
동으로 예산광시 북으로 금당이라  
그곳에 피어난 꿈 열정이 모태되어  
누구나 이곳에 오면 달힌 문도 열려요

해발 340미터의 형제봉인 초롱산이다.

초롱불은 등불을 가리키는 언어이다. 초롱불하면, 어쩐지 로맨틱해서 독자들을 미묘한 분위기로 이끈다.

산에서 등불을 켜다는 일은 산사에서 기도를 하거나 제사애나 할 일이다. 그러므로 산 이름이 ‘초롱산’이라면 분명 이 언어에는 서러운 뉘앙스가 스미는 것을 우리의 정서상 어쩔 수 없는 아이러니이다.

초롱산이라는 전설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초롱산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소위 선비를 상징하는 은유로 ‘문필봉’이라고 불리웠다는 근거는 확실히 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는 초롱산이 문필봉이라고 굳게 믿는바가 있다. 초롱산 북쪽마을은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이다. 이 금당리는 유명문인 세 사람이 현재 왕성한 문필활동을 하고 있다. 유문동, 이정록, 유선자씨가 그렇다. 시인 장동수 선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 네 사람이 서북쪽 문필봉 아래에서 태어났다. 동쪽 골짜기에는 구전문학가 최석규, 최병한 시인이. 운산리·광시리·은사리인데 여기에서 김광희 선생(시), 수필가 하금수, 전하성 시인, 한철수, 김미경, 필자가 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은 50년대 여성시인 서창남선생(작고), 현재 87세의 채진석 시인이 생존해 있다.



## 초롱산의 슬픈 사랑과 충의 전설

초롱산 밑 동·남으로 문인들이 대거 배출된 탓인지 초롱산 전설도 여러개의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유력한 두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그 첫 번째가 고려 공양왕 때(1345 ~ 1394)의 이야기이다. 부원군이었던 함평이씨가 재상으로 있었다. 그는 강직하고 올바른 재상이었다. 왕과의 의견대립으로 사직하고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등골마을에 낙향하고말았다. 이후 세월이 흘러 함평부원군이 훌륭한 재상임을 깨달은 왕이 복직과 더불어 정사를 논의하고자 신하를 파견하였다. 이는 함께 나랏일을 하자는 제안까지도 그는 거절했다. 이를 참다가 왕이 직접 나서서 아산, 예산을 거쳐 홍주 홍동면 왕주리골 마을에서 하루를 숙박했다. 먼거리에서 가마꾼들이 어가를 메고 온 것에 측은지심을 느낀 왕이 가마에서 내려 느릿느릿 걸어가는 바람에 등골마을까지 가기에 날이 저물었다. 캄캄한 밤길에 왕의 행차를 위하여 마을사람들이 등불을 밝혀 무사히 고개를 넘어섰기에 이 문필봉을 ‘초롱산’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지명의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 초롱산 동쪽마을에는 백씨 집성촌이

둘째로 이 마을에 백씨 종가에 마을 백씨가 흥주장에 소금을 사러 아침에 떠났지만 해가져도 소금장수가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던 부인이 등불을 들고 등골 언덕에서 매일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눈을 감았다는 슬픈 전설이 문필봉 초롱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지금까지 초롱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 것이 진짜 스토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전설이라고 한다.

초롱산은 전자의 이야기보다 후자의 소금장수의 이야기가 애절하고도 사랑스러운 부부애가 깃든 산인 것 같다. 초롱산은 숫산과 아낙네를 상징하는 암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초롱산 정상에 오르면 서해바다가 아득히 보인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 넓고 번쩍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왔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산을 앞뒤로 하여 유태흥 판사, 김윤행 판사들이 배출되어 문필봉 정기로 인하여 그 정기를 받지 않았다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리라.



## 광시는 옛날 교통 요지로서 역할

조선시대 광시에 광세역이 있었다. 현재도 광세역은 역말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니까 역참이라는 말이다. 광시를 통하여 홍성·광천·청양·예산으로 이어지는 요즘 유행어로 교통의 허브이다. 교통의 요지이니 자연 산물은 모이고 장이 형성되어 광시는 사람이 들끓는 장소이다. 백월산 석탄광산, 하장대리 금점, 천태산 무연탄 광산에 인부들이 들락거리니 주막과 선술집도 흥행했던 교환 통로이기도 했다.



광시에서 바라보는 임존성

공주에서 홍주로 가는 길은 세 갈래가 있었다. 월송리에서 장전리, 가방교를 거쳐 광시를 통과하는 길이다. 청양에서 천태리, 운산을 통하여 으미고개를 가는길이 있었다. 또한 광천에서 광시에 가려면 서울쪽으로 숯고개를 넘어 고개골로 하여 신양, 대술, 아산 곡교천을 건너 평택으로 하여 서울로 갔다. 또한 보령에서는 청양 화성을 지나 광시를 거쳐 지나 갔다. 광시지역은 멀리 선사시대부터 광천으로부터 생산된 소금의 교역로 역할을 해왔다. 이 소금은 충청남도 중부권의 소금, 해산물이 광시를 거쳐 공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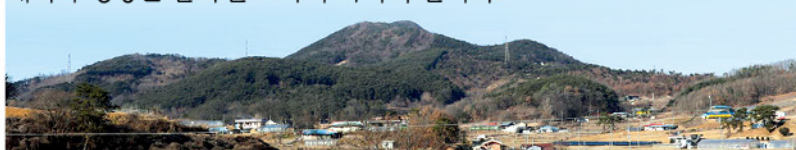
## 중부권의 소금과 해산물이 광시를 통하여

삼한시대에는 지침국이 흥동면 지역에 있었으므로 구례리 으미고개 주 교통로였다. 백제시대에는 백제 오방중 하나인 서방성이 흥성군 금마면 송암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사리, 구례리, 운산리가 주요도로였다. 동쪽으로는 월송, 고대동 소티가 주요도로였다.

백제가 멸망한 후로부터 임존성이 치소가 되면서는 마사리, 동산리가 주요도로였다. 이때 대흥이 중심지로 변하면서 기존의 행정지도 쇠퇴했다. 그러나 고려초 흥주가 흥성에 설치되면서 서북 교통로가 흥성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광시는 거리적으로 흥성과 가까워 주교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광시장터는 인근의 비봉, 화성, 반계, 대흥에서 짐꾼이 와서 붐비던 곳이었다.

## 광시의 물길

광시면 지역은 면의 중간을 청양군 비봉쪽에서 북으로 흘러들어간다. 무한천에 의해 산지가 양쪽으로 분리된다. 동쪽은 신양면과 경계를 이루면서 대흥면의 구릉지를 지나 예산읍 금오산까지 연결된다. 서쪽의 산지 역시 북으로 뺏으면서 임존성을 잇는 봉수산지를 이룬다. 그리고 응봉의 팔봉산 구릉지를 이룬다. 서쪽의 능선은 흥성군과의 경계를 이루게 된다. 광시면 행정센터 건너편 백월산은 해발 420미터로 광시면 대리와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사이의 산이다.



무한천은 오서산과 초롱산, 백월산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흘러 대흥, 광시를 지나 예당저수지로 흘러든다. 이 저수지 물은 삼교천과 함께 예산·당진의 젓줄이 된다.

## 초롱산의 식물들(1)

초롱산의 나무는 대체로 30여종이 넘었다는 임선태 전 군의원(96세)이 이장을 역임하면서 조사한 바를(1963)를 열거해보기로 한다.

소나무, 참나무, 층층나무, 갈참나무, 진달래, 오리목, 주엽나무, 팽나무, 물푸레, 밤나무, 도토리나무, 박달나무, 등나무, 보리수나무, 아가베나무 등이 눈에 들어온다. 60년대 5.16군사혁명 후에 헐벗은 산에 묘목 심기 즉 사방공사 운동을 펼침에 따라 외래종이 이식되어 지금은 훨씬 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종류를 헤아리기 어렵게 되었다.

## 초롱산의 식물(고마리 - 개메밀)(2)

세상에 인간들이 좋지못한 곡식의 열매나 식감이 좋지 못한 음식에 접두사 ‘개’자를 붙여 호칭한다. 개살구, 개똥참외, 개메밀 등등 엄격한 차별화를 시켰다. 그 가운데 여기에서 소개하는 풀 이름도 개메밀이다. 그러나 정확한 표기는 고마리이다. 초롱산 기슭은 다른 산지보다는 비교적 습한 땅이다. 이런 습한 땅에는 고마리풀이 군집을 이루게 된다. 이 고마리는 무리지어 살면서 메밀과 비슷한 열매를 맺는 풀이다. 메밀보다 맛과 질이 떨어지니 당연히 개메밀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마

니풀씨의 열매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농민들의 간고한 삶에 구황식물로 등장했던 아픈 추억의 잡초씨앗이다. 이 잡초의 열매는 검은색으로 메밀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지 식량난에 허덕이던 농민들이 메밀수제비와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처럼 기록은 무서운, 살아있는 증거이다. 선진국, 그리고 지혜로운 민족은 기록을 중시한다. 이 기록은 죽어있는 종이지만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로 전해준다. 고마리는 돼지가 좋아하는 풀이다. 그래서 돼지우리에 한아름씩 던져주는 기억이 필자에게도 있다. 고마리는 줄기 아래쪽으로 굽은 날카로운 가시가 나있다. 이 가시가 다른 동물의 몸에 붙거나 털에 묻어서 자기들 씨를 넓은 땅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토확장을 위한 생태를 지닌 가시인 썸이다. 이 고마리는





핑크색 꽃을 피워 매혹적인 색깔을 지니고 있는데 마치 어린이들이 즐기는 별사탕 꽃처럼 앙증맞다.

이 작은 꽃은 한 대롱이에 10개에서 스무개의 꽃이 된다. 그러나 하나의 꽃처럼 보이나 꽃이 차례로 피어난다. 이 고마리는 일년생 풀이므로 씨앗을 맺은 다음에 시들어 죽어버린다. 다행히 물새들이 고마리 열매를 즐겨먹는다. 껍질이 딱딱해서 소화기 안된 씨앗은 새똥과 함께 범벅이되어 밖으로 나온다. 이 새의 몸을 통한 풀씨는 드디어 낫선 땅에 유민처럼 뿌리를 내리고 자기 생식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가시가 달린 풀이라고는 하지만 그 가시의 존재가 우리에게 강인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풀이라. 참 신기한 열매이다.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봉·수·산



## 서시      이정록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이 너무 성하다.

### 봉수산, 그 뼈아픈 패전의 장소

#### - 나·당 연합군의 공격 -

봉수산은 대한민국의 중서부에 자리잡고 있다. 높지도 얇지도 않은 지형이다. 그래도 주민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형국의 산이다. 이정록 시인처럼 나무나 숲은 마을과 가까울수록 훼손되고 상처가 깊다. 봉수산은 해발 483미터로 홍성 마사쪽에서 보면 산 전체는 가파르고 암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흥쪽에서 보면 낮은 구릉성 산지로 골짜기가 험하고 경사가 급격해서 산성 연구자나 일부 등산객을 제외하고 봉수산을 찾는 이는 아주 드물다고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봉수산은 산으로서 인간들에게 아직은 침탈당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다. 원래 산이라 하면 지표면이 주위보다 높이 솟아있는 지형을 우리는 ‘산’이라 한다. 산이 산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골짜기가 깊어야한다. 골이 깊으면 물이 흐르고 그 물은 농민들한테 농업의 생명수가 된다. 흔히 산이 높고 골짜기가 수려하면 아름다운 고장이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름답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산마을 인심이 후덕하고 사람냄새가 오롯하게 피어나야 그곳은 명당도 되고 찾는이의 발길도 잦다.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들이 모두가 몸살을 앓고있는 형편이다. 산은 예외없이 인간으로부터의 상처가 깊다. 그 상처라는 언

어는 자연이 파헤쳐치고 나무는 가지가 베어지고, 허리가 잘리운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뿌리채 포크레인에 끌려나오는 모습에 보는 사람들은 가슴이 오그라든다. 산이 인간에게 주는 과학적 근거는 단순히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다. 산은 모든 것을 제공한다. 돌개는 사람도, 나물개는 사람도 나무의 우듬지를 내리찍거



대흥의 옛지도

나 날카로운 전기톱날에도 그것들은 속으로 울을지언정 산은 통곡하지 않는다. 그것은 산이 지닌 미덕이요, 산이 지닌 무게이다. 예부터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산기슭이거나, 산에서 내려오는 집수가 모여지는 마을에서 등지를 틀었다. 물이 풍족한 산야는 풍년이 든다.

## 풍년은 산이 주는 혜택이라고 한다

그 풍년은 산이 주는 혜택이다. 동쪽 봉수산은 충청도 서들광문 평야를 향하여 흐르고 일단, 예당 평야에 멈춘다. 그래서 당진평야를 적셔준다. 평야에 물이 닿는다면 이는 가뭄에도 끄덕없이 견디고 곡식의 소출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 봉수산 북에서 흐르는 물은 금마평야를 거쳐 삼교천으로 빠져든다. 물은 이렇게 산은 마을과 평야에 평화와 풍년을 제

공한다. 좋은 산을 지닌 지역은 산에서 생산해내는 임산물로 부가가치를 생산해낸다. 식물이나 가축도 산에서 기르고 시장에 반출된다. 봉수산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산이 지닌 유명성은 백제 마지막 부흥전쟁에서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비롯된다. 어느 산인들 산속에서 피아간 피튀기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산이다. 은폐하기 쉽고, 잠복하여 적의 심장을 겨누는 곳이 숲이거나 바위 뒤에서 벌어진다.

특히 삼국시대 나·당 연합군의 공격도 내포지역 산에서 벌어졌다. 장곡산성을 비롯하여 학성산에서도 소구니산성에서도 싸움은 초룡산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 가운데 봉수산 임존성은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백제부흥전쟁에 격전을 치루었다. 불행하게도 외세를 끌어들여 패전한 치욕의 산이었다.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비극의 산이 바로 봉수산 전투였다.

봉수산 저 바위등에 슬픈 날 새겨두고  
앞뒷집 장정들이 돌맹이 움켜쥐고  
치열한 싸움벌인곳 내 마음도 뜨겁네

봉수산에서 최후의 생을 마친 남정네들은 못먹고 굶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백제의 자주적 삶을 회구하면서 부흥을 위해 싸우다가 산화했다. 더러는 패전의 노예로 끌려갔다. 대다수는 노획물이 되어 객지 땅에서 억울한 생을 마쳤다. 어찌 애석하고 원통하지 않으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인들은 봉수산이 그냥 새모가지 모양이라고 속단을 한다. 그게 아니다. 봉이 되고자하는 백제인들의 자주적 투쟁을 역사에 새겨들만한 일이고 잊을 수 없는 패전의 싸움터가 봉수산이다.



봉수산은 백제 부흥군의 발상지이다. 그리고 부흥군의 중심이 되었던 산성지이면서 최후의 격전지이기도 하다. 또한 의병·승병의 발상지로 역사에 기록되어있다. 백제 부흥군 부여복신(扶餘福信), 승(僧), 도침(道琛), 지수신(지수신), 흑치상지 등이 나당연합군에 대항하여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다. 사적으로 제 90호 봉수산은 비교적 낮은 곳으로 해발 484미터이다. 진(鎭)이나 보(堡)의 역할을 한 산성이다.

북쪽은 면계(面界)로 능선 성곽은 대흥면 남쪽과 동쪽은 광시면, 서쪽은 성곽은 흥성 금마면이다. 성곽 정상에서 바라보면 동쪽은 금북정맥, 서쪽에는 서해를 등지고 있는 가야산(伽倻山) 연봉이 둘러있다. 동북으로는 도고산(道高山)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서 있다. 남으로 오서산이 좌정하고 성주산 연봉이 모두가 부흥군이 발길이 거친 산이었고 들어왔다. 봉수산 임존성의 성 주위는 1574미터로 5.195척으로 성곽의 높이는 2미터나 3미터로 지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샘이 3개소로 「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퇴메식 산성에 석성(石城)암석산으로 자연 석재를 직선형에서 단경사 성벽으로 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백제시대의 기와편이 산재해 있어

서쪽 곡성 안쪽에 누지(樓地)가 있으며 백제시대 기와조각 토기 등이 발견된다. 성의 중심부에 비교적 넓은 광장을 이루고, 아래로는 석축 방죽둑이 있다. 샘은 중심부에 한 개가 있고, 구릉을 넘어 동양 평지에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임존성은 수공(水攻)을 했던 산성으로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제 부흥전쟁 1300년이 되었구려  
산과 들은 옛모양 그대론데  
망국(亡國)의 한을 갓고저  
의병 장군대에 모여섰지  
나라사랑 손길이 층마다 쌓여있고  
한손에 창들고 한손에 염주들고  
짓밟힌 원수 무찌르다 죽어간 부흥군  
빛내리 선조들이여 무공정신이라네

이 시는 내포문화연구회 위령제에서 임종본 시인이 읊은 시이다.



## 백제 부흥군의 뼈아픈 패전

백제 의자왕이 나·당 연합군에 항복함에 따라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나 다시 부흥운동으로 나라를 찾으려는 부흥군들이 임존성으로 모여들었다. 이 임존성 전투는 당나라 장수 유인제의 책략에 의해 부흥군의 핵심 장군이었던 지도층들은 패전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부흥군 전투에서 패전한 왕 부여풍은 몸을 피해 고구려를 탈출망명하고 왕자 부여 충승(忠勝)과 충지(忠志)는 항복하고 말았다. 하지만 임존성을 지키던 지수신은 끝까지 항전하고 항복하지 않았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고귀한 백제 부흥의 원대한 꿈을 지닌 의병과 승병의 발상지인 봉수산 임존성의 명성만이 나라사랑의 본은 보여주고 있다.

## 인심으로는 이정도는

### 이성만 형제우애가

대흥면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이다. 그리고 대흥면 아문 앞에 이성만 형제 효제비가 세워져있다. 이는 오늘날처럼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 전설같은 형제우애 이야기가 비석에 새겨져있다. 이 비석은 높이 20.3센치 폭 43.5센치 두께 25센치로서 1418년 11월 5일 지신사(知申事)하연(河演) 주청에 의해 1497(연산군3)년 세워졌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팩트이다. 그 스토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도 대흥호장(大興戶長) 이성만(李成萬)과 이순(李順)이 우애가

매우 돈독하고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한 형제가 살았다. 형이 후일 대흥 촌장이 되었던 이성만이요, 동생이 순이다. 형은 윗들거리 (현 상중리) 마을 동생은 오리골마을(현 광시면 월동리)에 살고 있었다.

동생 순이 분가해서 따로 살고 농사도 따로 짓게 되었다. 형은 아우가 새살림을 냈으니 소용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 하여 자기가 농사지은 벼를 주어야하겠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형이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벼라도 가져다주어야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동생은 형이 안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밤에 몰래 벼섬을 형의 집에 가져다 놓고 온다. 형도 아우네 집에 벼섬을 지고 가방고 다리를 건너다가 형제가 마주치면서 벼섬이 서로가 짊어지고 오간 사실이 알려져 미담이 먹물 번지듯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지신사는 임금께 미담을 적어올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효제비가 세워져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지다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려져 있다. 1978년 예당저수지 물이 빠지게되자 이 효제비가 드러나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오늘날 핵가족으로 분화되고 효제 우애가 물질로 인하여 눈앞에 이익만 보인다는 비평가들의 원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비석의 전면(前面)만 옮겨본다.

영락 18년, 11월 초 3일 지신사 하연은 삼가 왕지를 받들어 옳은 지아비와 절개있는 며느리와 효자의 순손을 갖추어서 방문하여 전하여 보고 할일을 드리노라

각 도에 대흥호장 이성만과 이순목이 부모생시에 단맛으로 봉양하고 춘추마다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부모가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그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물(沒)함이 미쳐서 형은 어미의 무덤을 지키고 아우는 아비의 무덤을 지켰고 아침에는 형이 아우의 집에 이르고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가서 조식으로 함께 이바지할 음식을 바치고 맛있는 것을 한가지라도 얻게되면 먹지 아니하여 또한 장계를 올렸다.

효자 대흥호장 이성만과 이순을 왕이 불러들이고 마을에 정문을 내리게하여 자자손손이 또한 조심해 지켜서 가풍을 떨어뜨리지 말고 다시 힘쓰기를 더하여 교훈을 영세토록 보이게 하였다.

좌측면에 흥치 10년 경축 2일에 세움

※ 마멸돼 판독할 수 없는 한자는 모두 6자이다

이 얼마나 인간다운 충효제의 본보기 사례인가. 사람이 잘 사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는 일이다. 봉수산 아래 동쪽으로는 대

흥읍성의 구삼현(舊三縣), 즉 예산, 덕산, 대흥 중 유일하게 관아 건물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 관아 동헌과 동헌문은 현재 대흥면 행정복지센터 관내에 있다.

원래 아문(衙門)은 대흥초등학교 정원에 위치해있었다. 이 아문이 해체되어 예산 산성리 화랑묘를 건립할 때 부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객사는 대흥초등학교 현 위치에 있었고 옥사는 현 대흥 농협 창고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봉수산 아래에 태종7년에 설립된 훌륭한 교육기관인 대흥향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부근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높은 이상과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차세대 교육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 도덕과 윤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신념은 지금보다도 옛날 어른들이 중시했다.



이 대흥향교는 광시·대흥·신양·응봉이 관할구역이었다. 이구역의 유림들이 옛 성현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송모의 정신을 함양하였다. 이는 인재양성 예의 선행을 목적으로 하였고 예산 일대 가장 먼저 세워진 학교였으나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손실되었다. 지금의 향교는 이후에 세워졌으며 음력 2월과 8월에 초혼관을 지내고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봉심(奉審)을 올린다고 한다.

향교가 존재해있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라갈의지와 더불어 인근 마을에서도 부러워했던 교육기관이다. 학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꿈의 실현을 위한 인재양산의 생산기지요, 창조의 플랫폼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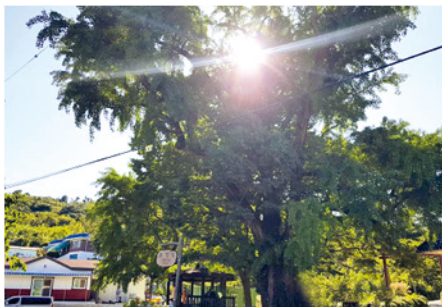
## 세상에 이럴 수도 있어 - 연리지 -

대흥면 교촌리 일명 향교말에 가면 대략 600년이나 되는 은행나무가 있다. 찾는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귀를 기울이면 이 노령의 은행나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때론 은근하게, 때로는 크게 들리기도 한다. “인간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서로가 이진투구 하지말고 이렇게 살면 모두가 평화롭게 되느니라”

600년이나 된 은행나무 틈사이로 느티나무 씨가 떨어져 싹이났다. 이 싹이 100년 지나도록 은행나무가 품고 자랐다. 이 100년간 느티나무가 은행나무 속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았다. 아주 건강한 두 그루가 지금도 잘 살고 있다.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이 기이한 현상을 사람들은 시쳇말로 ‘상생의 나무’라고 부른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영토, 자기 영역에 타인이 들어오면 쫓아내거나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진다. 이는 이목에 눈이 멀었고 서로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공생(共生)하고 있으면서 마을에 평화와 어울림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기



적같은 현상에서 마을 이름을 “선학동천”이라 일컫어왔다. 이 마을에는 봉수산 주맥이 북으로 오르다가 비상하는 학의 태도를 품은 형상이라고 한다. 학봉에서 북으로 쳐오르다가 한줄기 수려한 봉수산 산세가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마을을 감싸안고 있다. 더구나 심청전 근원설화가 되는 ‘원흥장’의 배경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원흥장의 효심과 그가 중국 황후가 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관음사적기」가 보존된 마을이다.

작은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고 이 물은 비산비야를 적시고 나서 예당저수지로 흘러간다. 이런 미풍양속을 지닌 곳이라서 그런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아직도 발견되고 또 발견된다.

### 봉수산의 식물 -밤의 촛불이라는 이름-

7월이나 8월이면 밤에 피는 꽃이 있다. 그게 달맞이꽃이라한다. 독일에서는 이 식물의 꽃이름을 ‘밤의 촛불’이라 부른다. 이 달맞이꽃은 우리나라 야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다. 이 꽃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저항하듯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이 야생식물 나무의 뿌리, 줄기, 잎 그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약용, 식용이기도 하다. 특히 몸에 약이되면서, 차로 달여서 마시거나, 씨를 기름으로 짜서 먹기도 한다.

## 달맞이꽃은 누구의 혼령인가?

해가 지고 대지에 땅거미가 내리면 달맞이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듯한 그리움이 배인 꽃이다. 더구나 성큼하게 줄기가 큰 줄기에 여러층의 노오란 꽃의 모양새가 그리움과 회한을 잔뜩 안고있는 것



처럼 느껴진다. 봉수산 그 척박한 산성지에 무더기 무더기로 피어나는 꽃들은 백제부흥운동을 하다가 장렬하게 산화한 의병과 승병들의 영혼이 환생하는 것 같아 슬픈 마음에 젖어들게도 한다.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어둠이 짙어지면 꽃들이 일제히 피어난다. 파라볼라 안테나처럼 접힌 꽃잎을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스피드로 연다. 이

는 마치 연속사진을 보는 것 같다. 특히 꽃송이가 큰 달맞이꽃 개화장면은 정말 볼만하다. 달맞이 꽃은 팜새나방이라는 나방이 꽃가루를 옮겨 준다. 달맞이 꽃은 사실 기다림의 꽃만이 아니다. 달맞이꽃의 노란색은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잘 띄는 색깔이다. 어린이용 우산이나 자전거의 반사테이프가 노란색인 것은 어두운데서도 눈에 잘 띄게하기 위해서 사



용한다. 유치원이나 학생용 버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밤에는 시계(視界)가 나쁘다. 그래서 달맞이꽃은 아름다운 색깔 이외에도 포도주와 비슷한 강한 향기를 드러낸다. 그 향기가 참새나방을 불러모은다.

### 여자가 향수로 남자를 유혹하는 이치의 꽃이?

여자가 향수로 남자를 유혹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식당에서 갖가지 음식냄새로 손님을 유혹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달맞이꽃 환상적으로 달을 환영으로 맞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참새나방을 불러오기 위한 색깔이란다. 참새 나방이 달맞이꽃을 떠날 때 보면 꽃가루가 실처럼 이어서 딸려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달맞이꽃의 생식본능의 책략이라 할 것이다. 한 많은 봉수산에는 어울리는 꽃이 아닐까한다...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학·성·산



## 학성산은(鶴城山) 작은 산, 높은 기상이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체구를 말하지 않는다. 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적이나 됨됨이나 사회 영향력을 절대로 참고한다. 그리고 학식이나 교양, 그리고 철학과 인생관이 무엇이었든가를 따지게 된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 에너지를 어디에다 썼으며 무슨 일에 열정을 바쳤는가를 분석하여 위인, 열사, 의사, 선생으로 나누고, 무슨 기술을 지녔는가에 따라 장인 공인으로 나누곤 한다.

산도 마찬가지이다. 태산같이 높고 넓다는 것만으로도 산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다. 비록 작고 아담하다 한들 산이 아닌 대지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 되었던 자그마한 높이의 학성산을 말해보고자 한다. 문자 그대로 학성산은 고도가 얕다. 대신 주변이 온통 부드러운 산맥이 툭날처럼 연이어져 이루어져 있다.

## 학산이라고 불리지만 얼방산성의 일부라고

그러니 부흥군들이 산성에서 나당 연합군과 전투를 하다가도 후퇴하는, 은폐의 장소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아울러 군사들의 병참물품을 전달하는데 용이한 점도 지닌 산이 바로 학성산이다. 해발 121미터, 성 길이는 1350미터이다. 이 학성산은 규모가 작은 대신에 주변에 장곡산성으로 불리는 주류성, 태봉산성, 소구니 산성, 천태산 산성이 연이어져 있다. 학성산 산성을 비롯한 흥성 주류성이 백제 부흥 전쟁을 치른 지휘부의 위치가 아니다, 거기다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20년이나 지속되었다. 이제 이 성이 백제 주류성이 맞는다는 학자들이 연구결과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논란은 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이재준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흥성 장곡산성이 백제 전적지로서 주류성으로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발표되었다. 장곡산성은 학성산과 지척관계에 있으므로 아울러 학성산은 가까운 주변 산성과도 전략적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점이다. 대흥 임존성과는 12.6 킬로미터, 당진 혜성과는 37킬로미터이다. 부여 부소산성과 27킬로미터이다. 산이 도래도래 연맥이 되어있어 작전에 중요한 지리적 합리성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실체가 사실로 드러나 있다. 산성안에 건물터와 주춧돌, 명문기와와 토기류가 출토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872년 지방지도 장곡면 일대



조선후기 해동지도 장곡면 일대

## 명문(銘紋) 기와가 출토되다

명문기와에는 ‘사시’, ‘사시랑’, ‘사라’가 새겨진 명문기(銘紋記)와 문초석, 돌덧무덤(석곽묘), 청동제 방울, 백제 토기류 등이 발굴되었다. 이 발굴은 상명대학 발굴단 보고서가 발표한 내용이다. 1998년 7월 25일 충남문화재 자료 제 360호로 지정된 바 있다.



## 학성산 아래에 떠 있는 기와집

집이 산을 품고 산은 인재를 키운다.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 풍수를 따지고 앞산과 뒷산의 구조와 하천이 어디로 감아돌며 원·근거리를 설계에 반영시킨다. 그러한 옛집들이 바로 명품 고택이다. 홍성에서



학성산 밑의 사운고택 모습

최고(最古)의 집은 바로 사운고택이다. 사운고택은 400년 역사를 담아 내면서도 위풍은 그저 담담한 표정이다. 그러나 이택의 가치는 원형이 비교적 살아있다는데 장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집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는 물음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운고택에 와서는 인물자랑 해서는 안된다는 전설이 있다. 그것은 이 양주조씨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유력인사들이 배출되어 세칭 “별로서 빛나는 집”이기 때문이다.

### 별들이 반짝이는 명가고택이 손짓하는데

조선 중기의 중시조는 증좌찬성 남(攀)의 아들 용호 조존성(1554 명종 9) ~ 1628(인조 6)이다. 후손이 사는 집이다. 조존성 시호는 소민공이다. 조존성은 20세에 사마시에 합격했다. 이어 중광문과 사관(史館)에 들어가 검열의 직을 맡았다. 이어 대교, 예조좌랑, 정언까지 역임했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병부상서 석성(石星)에게 우 조선에서 명군의 철수를 부당하다 설파하여 중지시켰다. 아울러 용호 조존성이 명나라에서 초황(哨黃) 수만근을 얻어내는 실적을 올렸다. 그 공적으로 직강직으로까지 승진을 했다. 또한

1597년 어사로 군량미를 무려 40만석까지 확보하여 국방을 튼튼히 했다고 「양산세고」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용호 선생은 호남어사, 형조, 호조의 참판, 부총관, 끝으로 검찰사로 왕을 공주까지 호종했다. 뒤에 강





사운고택 전경

원도 관찰사를 거쳐서 호조판서를 역임했다. 시호는 소민(昭敏)이다. 그의 시조 4수가 「해동가요」에 전한다.

## 소민공 조존성의 시가가 흐르는 골짜기

지금도 400여년 옛집 「사운고택」에 가면 호조판서에 이르른 그분의 국가적 헌신과 개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였던가를 소리없이 말해주는 것 같다. 중시조의 막힘없는 승진과 백성을 위한 열정이 그의 시가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 예조참의를 거치다

조존성의 아드님 또한 조창원의 아호는 오은(悟隱) 형조좌랑, 직산현 감, 인천부사 재직시 딸이 인조의 계비로 간택되고 한원부원군에 봉해졌고 영돈영 부사에 배수되고 시호는 혜목(惠穆)이었다. 조운석은 1615년(광해군 7년) ~ 1664(현종 5년) 아버지는 창원이며 생원·진사 양시에



학성산 밑의 사운고택 모습

합격, 한성참군 형조와 호조의 좌랑을 거쳐 양성현감이 되었고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지평장령 정언, 헌납, 문학, 문학직강 사예, 수찬 교리등을 역임하였고 승지를 거쳐 상의 원정 호조참의, 예조참의 판결사 등을 역임하였다.

조예원은 조존성의 아들로 1616년 진사시를 거쳐 의금부도사 별시문과를 거쳐 형조좌랑, 세자시강원 도덕으로서 수원부사, 동부승지, 예조참의, 강화유수, 도승지, 경상감사를 거쳤고 이어 전라남도 감사를 거쳐 형조판서에 이르러 사직하고 보령에 은퇴하여 한가한 여생을 보냈다. 시호는 충정공이다.

조진석은 1610(광해군 2) ~ 1654(효종 5) 조람의 종손이다. 호는 용은 어머니는 신음의 딸이다 1634(인조 12) 성균관 유생이 되고 전별사 별검 사옹원 의금부도사, 임실현감, 병조청장, 지평, 장령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조구석, 조사석, 조가석, 조태동, 조태제, 조태로, 조태구, 조태일, 조태만. 조태억, 조도빈, 조관빈, 조지빈, 조병빈, 조영진, 조두순, 조병덕, 조창규, 조병식 등이 거물 당상관이 배출된 집안이다.

이외 사회의 지탄이 된 고부군수로 재직 중 고부민란 직접 유발시킨 장본인이 있고 조주응은 1910년 한일합병 때 법무부 형사국장의 개국 7역신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양주조씨의 빛나는 가문의 전통을 지닌 채 400여년을 지내 온 학성산 아해 사운고택은 오늘도 침묵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주고 있다. 그러니 산이 인걸을 품었고, 인걸은 또 산을 바라보면서 이상을 실현했다고 하겠다. 여기 조존성에 관한 필자의 소논문들을 통하여 그의 문학사적 의의를 되짚어본다.

## 조존성 문학적 기호학의 열쇠

- 낭만적 연시조의 확립과 그 개화성 -

### 전기적 생애

조존성趙存性 1554(명종 9) ~ 1628(인조 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梁州. 자는 수초守初, 호는 용호龍湖 또는 정곡鼎谷. 증판서 연손蓮孫의 손자이며, 준수俊秀의 아들로 증좌찬성 남攀에게 입양되었다. 성흔成渾·박지화朴枝華의 문인이다. 20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더욱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특히 이항복李恒福·신경보辛慶普 등과 가장 친하게 지냈다고 전한다. 1590년(선조2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며, 사관史館에 들어가서 검열이 되었다. 이듬해 대교에 승진되었으나 모함을 입어 파면되었다.



소민공 조존성의 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 있다가 이듬해 의주의 행재소行在所에 가서 다시 대교에 복직되고, 이어 전적에 승진되었다. 그는 예조좌랑·정언을 역임할 때 남방의 왜구들을 회유하려 하였으나 죄없는 백성들만 괴롭힌 격이 되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회유정책을 철회하고 힘으로 물리칠 것을 강변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이듬해에는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서 병부상서 석성(石星)에 우리나라에서 명군을 철수하려는 것을 중지시켰고, 또 초황(炒黃 : 화약연료) 수만근을 가지고 와 그 공으로 직강에 승진되었다.

## 명나라에서 화학연료를 수만근 수입하였다

1579년 어사로 군량미를 운반하였는데, 그 양이 무려 40여 만섬을 넘어 군량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다.

1601년 강화부사가 되어 1년만에 백성들을 안정시켰고, 그뒤 호남어사·충주목사·단산군수를 역임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선치하여 백성들의 환심을 샀다. 1613년(광해군 5) 광해군의 생모추존에 반대하여 파직당하고, 1623년 인조반정 뒤에 형조·호조의 참판, 부총관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검찰사(檢察使)로 왕을 공주로 호종扈從하였으며, 난이 평정된 뒤 지금의 금부사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뒤에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1627년(진조 5) 정묘호란 때 왕이 강화도로 가면서 분조分朝의 호조판서에 임명하여 세자를 따라 전주에 갔으나 돌아와서 병사하였다. 시조 4수가 ‘해동가요’에 전한다. 시호는 소민昭愍이다.

## 근대적(近代的) 가치관의 변화(变化)

조준성 문학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점은 중세에서 근대의식의 이행(移行)이라는 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크게 깨달은바 조선이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비의 필

요성을 몸소 펼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사상적으로 정립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당시에는 문학적 형태가 단시조가 주류였지만 소민이 4수의 연시조를 창작하여 그 문학성의 연속성과 예술미학의 재정립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존성의 획기적인 성과에 힘입어 당대의 사설시조, 판소리가 일반에 공연되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소민이 우리의 가사문학에 혁혁한 공과를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형식미와 가치관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당시의 난삽한 고어古語를 사용하여 현대인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여기에서는 현대어로 해석된 「호아곡(呼兒曲)」 전문을 옮겨 그 시적(詩的) 감흥을 느껴보기로 한다.

### 제1수

아이야 구력 망태 거두어라 서산에 날 저물겠다  
밤 지낸 고사리 이미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풋나물 아니면 아침저녁 어이하리

### 제2수

아이야 도롱이 샷갓 챙겨라 시내에 비 오겠다  
기나긴 뉘싯대에 미늘 없는 뉘시 매니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겨워 하노라

### 제3수

아이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마을서 새 술 먹으리라  
대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오니  
어즈버, 희황 때 옛사람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 제4수

아이야 죽으로 아침 다오 남쪽 밭에 일이 많다  
 서투른 다비를 뉘와 마주 잡으려나  
 두어라 태평한 발갈기도 임금님의 은혜로다

- 조존성 「호아곡(呼兒曲)」 전문

### 호아곡의 문학적 성과(成果)

조존성 시조는 당시에 단시조에서 탈피하여 4연 연시조로서 형식미에 재창조했다는 파격적 이행을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는 화자話者가 아이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전원적 삶에 흥겨운 만족을 유로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문학적 낭만성과 자족감을 고양시켜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주제적 충실성이다.

### 호아곡의 수사적 특징은 반복법이

셋째로는 반복으로 아이를 부르는데 각 연이 긴밀한 호응으로 독자를 의식한 운율과 시적 통일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괄목할만한 문학적 성과라 하겠다. 이러한 조존성 문학이 근대문학으로 발전해오면서 만해 한용운이나 소월 김정식이 이와 같은 영향이 반복의 수법을 활용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전대의 소민이 문학적 후대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의미가 한층 부각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 저자가 선비임에도 일반서민과 호흡을 같이 함으로써 문학적 보편성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일반 독자들과 호흡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귀족 신분의 조존성의 대중화의 선언이 담긴 소통의 통로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호아곡 속에는 소민의 고결한 삶과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태평한 발 갈기조차도 역시 임금의 은혜임을 적시하고 있어 유교적 색채의식이 명료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조존성 문학의 색채적 의식세계는 생명성의 건강한 녹색공간이다. 서산 → 동쪽 → 남쪽 → 북쪽이 각기 이동하면서도 방향성에 우주적 철학과 건강한 색채의식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4연의 연시조 속에 녹아있는 전원교향곡은 우리 국민의 노래가 되었고 천진한 아이를 부르는 반복의 수법이 작가적 완성도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해동가요에 실려 있는데...

조존성은 연시조 문학의 탁월한 선도자인 동시에 근대성을 품은 창시자로서의 연시조를 완성한 작가이다. 비록 「해동가요」에 실려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다. 앞으로 여러 문헌에 산재한 시가를 발굴하여 그 완숙미를 세상에 알리는 게 바로 우리 세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연시조 4수로서 그의 천재성이나 문학성을 논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고장의 위대한 선비요, 문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허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독자들을 위해서 여기 원문을 옮겨 독자와 함께 고전적 의미를 맛보고자 한다.

아햏야 구럭 망태 어두 西山(서산)에 날 늦거다  
 밤 지낸 고사리햏마 아니 늘그리야  
 이 몸이 이 푸새<sup>1</sup> 아니면 조석(朝夕) 어이 지내리

아햏야 되롱 샷갓 출화 東間(동간)<sup>2</sup>에 비 지거다  
 기나긴 낙대에 미늘<sup>3</sup> 업슨 낚시미야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흥)계워 햏노라

아햏야 쇼 며겨 내여 北郭(북곽)<sup>4</sup>에 새 술 먹자  
 大醉(대취)햏 얼굴을 들빋체 시러오니  
 어즈버 羲皇上人(희황상인)<sup>5</sup>을 오늘 다시 보와다

아햏야 粥早飯(죽조반)<sup>6</sup> 다오 南廟(남묘) 밭에 일 만해라  
 서투른 싸부<sup>7</sup>를 늘 마조 자부려노  
 두어라 聖世躬耕(성세궁경)<sup>8</sup>도 亦君恩(역군은)이시니라

- 조존성 「호아곡(呼兒曲)」 원문

\*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然藝室記述, 國朝人物志, 漢陰文稿, 精選考, 楊山世禱

1 푸새 : 산나물

2 동간 : 시내(동쪽)

3 미 : 갈고리

4 북곽 : 북쪽마을

5 희황상인 : 복희씨

6 죽조반 : 죽으로 된 아침밥

7 싸부 : 다비(농기구)

8 성세궁경 : 태평세월

## 그리고, 소민공의 단가(短歌)의 특성 연구

소민공 조존성은 가사문학은 조선 중기 가사문학의 대표적인 국민시인이다. 시인이라 함은 가사 민요 민중의 노래까지 포괄하는 고전적 개념이다. 우리의 정신적 문화유산이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전통과 접맥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속에 작품이 탄생되고 또는 소멸되는 게 자연의 이치이다. 그런데도 시대를 관통하고 세대와 세대의 벽을 넘는 게 소위 명작이라 일컫는다. 소민공 조존성은 그의 출신 성분이 귀족이다. 귀족이라 함은 당대에 양반, 혹은 선비라는 의미로 함축된다. 대개의 선비들이 남긴 고전시가들 당대의 유행이 함께 했다. 향가에서 경기체가 그리고 장가, 단가 시조 등이 일반적 주류였다. 이 주류의 대유행은 그 형태와 내용이 문제로 부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장르적 특성 안에서 소민공의 연시가, 그리고 단가문학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음에도 최근 「가곡원류」와 「양산세고」에 실려 있는 작품을 발견한 것은 필자를 비롯한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관계자들에게는 반갑고 느껴운 행복이다. 특히 조선 중기 시가 중 단연 으뜸이라고 하는 장가長歌 「호아곡」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우리문학의 정체성과 문학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장가 제4수는 앞에서 그 특징과 문학적 성과를 논의하였기에 여기에 실린 단가들이 지닌 특성과 문학적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우선 「푸른 물 꽃다운 물갓」을 살펴 보기로 한다.

푸른 풀 꽃다운 물갓 봄빛이 한창인데  
갠 날에 흐르는 범선은 오르랑 내리랑  
소창에 비켜서니 보고지고 그 사람  
옥같은 그 사람이 서쪽 이웃에 있네.

이 단가, 단시조의 주제는 옥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실제 「양산 세고」에 부제대로 변명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 속의 주인공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이상향의 인물일 수도 있다. 중의적 수사법은 조선 중기에서 볼 수 없었던 기교였다. 소민공은 서쪽, 한양성 서강(西江)에 살고 있는 깨끗한 친구 변명숙이한테 보내는 답신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는 시를 통하여 고급한 품격과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민중, 즉 백성들한테 선량한 베풀어치가 되어 달라는 은유적 방법으로 해석된다. 당대의 세속적인 관리나 선비들의 현상은 허례허식과 가렴주구30 소민공 조존성 문학연구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가혹한 행위를 경계하는 삶의 지표로 이 글을 창작했으리라고 유추된다. 당신들, 느네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살라는 직접 화법이 아님이 이 글에 중량감을 더해주고 있다하겠다. 이 변명숙이란 인물은 인품이 두텁고 신중하며 궁구와 도량이 넓으며 꿈이 원대한 인물이 태어남을 변명숙이란 실제 인물을 선정, 모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가하면 부정과 부패 앞에서는 추상같이 냉엄하면서 어른을 섬기면서 충과 아울러 이웃을 돌보는 즉 옥같은 친구,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변명숙 같은 후진을 염원하는 동시에 자신에게는 엄격한 처신과 문장에는 유려함의 체계를 확립하라는 제시일 수도 있다.

## 낙원사상의 풍류가 짙어

푸른 풀, 꽃다운 물가 이 구절은 낙원사상, 자연의 싱그러움, 지상의 축제인 물아일체가 빚어내는 정경에다 눈앞 서강, 즉 한강수의 유유히를 청명과 대비시키는 솜씨가 미의식을 제고시키고 있어 지상천국의 이상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푸른풀 → 지상의 물 → 봄빛 범선 → 작

은 창을 통한 정감 - 서쪽 즉 지역을 제시하는 전개는 동적, 정적이 합일된 시가로서 주제와 형식, 표현, 미의식 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짜임이 음악성 율조를 연출해 내고 있다. 다음은 석루 이중에 게 보낸 「내 나이 칠십」을 살펴 보고자 한다.

내 나이 칠십이라 가난 근심 걱정  
병든 몸에 맡겼네  
두 달 석 달 싸다니다보니 비바람  
한햇 봄일세  
고국 땅에 사람 그림자 적고  
위험한 통노에는 되놈 사절만 분주하네  
쩍쩍한 부지대신이 있으니  
어찌 피눈물 흘리는 고신을 쓰리요.

이 시가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자신이 역량이 없는 데에도 국가에서 중책을 맡겼는데 선정을 베풀기 위한 고뇌를 밝



힌 내용이다. 자신의 능력, 연륜을 겸허하게 낮추어가면서 중국의 음험한 사신, 즉 아욕을 가진 국제사절을 ‘되놈’이란 용어를 사용, 간접적이며 대범한 응전력을 촉구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의 표현이다. 다소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정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흰털 붉은 잎」을 천착해보기로 한다. 이 시가는 임천에서 국사를 돌보는 현장의 아픔과 이별한 그대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절창이다.

흰털 붉은 잎 둘 다 소소한데  
추산을 대하니 산도 가을 사람도 가을일세  
앞뿔에서 낚은고기 크고도 살이졌네  
소합을 열고보니 술맛 또한 근사하이  
임천에서 종신함이 내 할 일ियो,  
호해에서 두번놀이 또한 숙년이라  
눈씻고 바라봐도 그대간곳 아득한데  
석냥 천변에 연기만 자욱하네

이는 자신의 나이(흰털)와 붉은 잎(시절)을 동일시 시켜가면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달관된 인생을 드러냄으로써 자연 속에 유유자적하는 지방인 임천에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소망어린 고백이기도 하다.

만년을 가을 산에 붉은 산을 자신의 처지를 색채로 결합하여 시적 감정을 고조시키는 수법은 송강 정철의 「장진주사」와 같은 낭만성의 발현이 한층 돋보인다. 눈씻고 바라봐도 「그대 간 곳」 아득하다는 노년의 외로움이 유추된다.

어찌 됐든지 시란 감정의 고백이요, 자기 주변의 제재로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출하는 예술이다. 예술이란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숨결이다. 이 숨결을 언어 미학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기능이다. 이 기능이 곧 작가에게는 기존의 시가들이 보여주었던 수월성의 발현이라고 할 수있다.

다음은 「동지 뒤 신앙이동」 권승지 보내는 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지 뒤 신앙이동하는 바다 모퉁이  
바람없는 날씨가 봄같이 부드러워  
살포트 뿌린 작은 비는 행각을 재촉하고  
정겹게 마신 술은 가는 배를 부여잡네  
금의 귀객은 북극하늘로 돌아가고  
소를 모는 한 사람은 물서쪽에 있도다  
서울의 친구들이 만일 서로 묻거들랑 다만  
강호에도 또한 걱정이 있더라 일러주소

해안에 풀을 깔고 온 이웃이 모아 앉아  
술병들고 찬함 열고 서로서로 친절하네  
막연한 벗 부어라 마시자 마음 주는 곳이요,  
얼치근 흥겨운 노래 석별곡일세  
봄맞은 북당에는 어머니님 강녕하시고  
천은이 깊사와서 새 원님 도입했네  
백년을 충효로 전가  
그대 바야흐로 힘쓸지니,  
잠깐 이별 부질없이 맘 상할 게 무엇인가.

## 조선시대 4대 시가문학의 대표라 할 수 있어

이 시가는 인생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이 자연 속에서 친화하면서 이웃과 친지와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화목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올곧은 선비사상이 짙은 시가로서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 농암 이현보와 더불어 조선시대 4대 시가 문학의 대표인물임을 충분히 하고 남음이 있는 작품이다. 다만 「양산세고」가 그간 일반적으로 많이 읽힐 수 없어 유감이었다. 그러나 늦게나마 「양산세고」를 통하여 보석같은 소민공의 작품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 시가 2수는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초월주의가 깊이 스며 있고 동양철학의 근본사상인 노장사상이 저변 시어 속에 세세히 스며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강호는 예부터 자연, 삶의 모태가 되었고 태평성대가 인류의 소망임을 새 원님을 도입하여 그 기대와 희망을 그리고 충과 효를 중시하는 유가사상도 짙게 배여 있음을 우리는 당시 시가에서 볼 수 없었기에 시가문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친구를 떠나 보내는 애절한 만가 「연하별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하별경에 속진이 끊어져 주옹의 심사  
 벼슬에 뜻이 적었도다  
 이오는 스스로 지기 상봉을 기뻐했고  
 왕한은 이웃 삼은 걸 어찌 잊으랴  
 술통이 반가이 대하던 건 몇 번이었던고  
 백발 금일 마을엔 찾을 사람이 없네  
 동원 일부 토에 추색만 소슬하네  
 혼백이라도 내꿈에 자주 찾아들게나

「연하별경」 세상에서 벼슬에 욕심내지 않고 골선비 권운경 부친의 장례식을 목전에 두고서 지난 날 절친하게 지내던 모습을 서사적 모티브로 애절함을 형상화 시켰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우정, 세교, 이상 종교 사상이 이 시가에 들어있다.

## 박학다식하고 골선비사상이 짙게 풍겨

기교적인 측면에서 안개속을 세상에 비유했고 춘추시대의 나관중의 이름을 본문에 삽입, 또한 원나라가 망해감에 산중에 숨어사는 왕한을 시어에 활용한 것은 소민공의 박학다식한 그의 세계를 파악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소동낙」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소동낙이 한바탕 꿈속이라  
오늘날 흰 터럭이 쭉대같이 영성하네  
부귀 공명도 우리에게 강요치 못하고  
승사는 도리어 속사밖에서 생기노라  
영해에 달이 뜨니 천경이 은빛이요  
추산에 단풍드니 만학이 다홍이라  
차시 진풍경은 그대 응당 독차지라  
잣길 두루 돌아 내 말은 동쪽으로 향하리

이 「노소동낙」 작품도 친구를 이별하면서 자연에 순응하고 태어난 운명을 안으로 삭이면서 이기고 지는 승부는 속세의 부질 없는 저항이라는 요지를 담고 있는 무게 있는 작품이다. 자신도 이 무릉도원이라는 속세를 지금 살고 있지만 향후 그대 가는 곳 동쪽으로, 즉 이상향을 그리던 곳을 찾아가리라는 고뇌어린 이별사를 하고 있다.

자신의 노쇠함을 영성한 쑥대로, 세상의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나 결국은 허무라는 것을 단풍을 통하여 은유하고 있다. 이 「노소동낙」은 「호아곡」과 함께 대표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허무한 인생이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순간을 즐기는 허무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조선 중기 시가 문학의 대표작품임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 학성산의 나무들

학성산의 나무들은 다양하다. 소나무, 참나무, 굴참나무, 층층나무, 보리수나무, 노간주나무, 서어나무, 낙우송, 신갈나무, 산초나무, 팽나무, 단풍나무, 녹나무, 감탕나무, 누리장나무, 붉나무, 두릅나무, 때죽나무, 화살나무 등이 울창하게 집의 연륜을 나무가 대변하는 것만 같았다.

사운고택과 학성산이 지척간이라서 오래된 거목들이 몇 백년 그대로 버티고 있다. 다른 고택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이택 주인이었던 조용식씨와 그의 아버지께서 소작인들과 동리사람들한테 후한 인심에서 6.25동란이 벌어진 참극 속에서도 아무런 피해나 손실도 없게 옛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내포지역의 그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집은 건축물만이 아니다. 나무와 인근 숲과 내와 강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집이 명당이 되고 그 집이 명가도 되는 셈이다.



집 주변으로는 수령이 몇백년이나 되는 빗나무와 느티나무가 줄줄이 정정하게 버티고 있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짧고 아슬가를 나무곁에서 느끼게 한다. 나무는 인간에게 유익한 산소를 제공하고 건축물의 주재료와 부재를 사용되게 한다. 옛 어른들의 잘 사는 방법은 지금처럼 돈으로 계산된 인위적인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변에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고 누정자를 짓고 사랑방에는 항상 서책을 마련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암송하게 했다. 그래서 동몽선습, 소학, 명심보감, 사서삼경을 자손과 세세 손자들에게 달달 외우게 했다. 뿐만 아니라 종학(宗學) 만들어 종종 아이들에게 도덕과 학문을 수련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도 했다. 고택은 기와집이 아니다. 그 안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짧은 세상을 대처했는가가 중요하다. 사운고택에는 술한 휴먼한 이야기 주머니가 있다. 벼품의 미덕과 인간적 선행, 긍휼과 동정이 있어 400년이란 세월을 유지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돈의 가치로 인간의 뜻을대문 앞에서 겸허해지지 않을수가 없는 일이다. 인간이 돈으로만 환산되는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 사운고택에 묵언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 학성산의 주된 식물 땅빈대풀(비단풀)

대한민국 60대에서 7·80대의 고령 인물은 뇌리에 영영 잊을 수 없는 해충이 들이나 들어있다. 그 하나가 바로 빈대이다. 밤에는 왕골자리 밑이거나 부들자리 밑에서 숨어있다가 등잔 불이거나 촛불이 꺼지면 사람한테 총알같이 대들어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 바로 빈대이다.



출처 :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

풀가운데 땅빈대가 있다. 땅빈대는 메마른 땅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지도 모른다. 한여름이 시작되기 전 7월이 되면 비산비에 땅빈대풀이 여기저기에서 솟아난다. 풀들은 대체로 잡초들 사이에서 위로 위로 향하면서 자라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땅빈대풀들은 옆으로 옆으로 뻗어나간다.

### 땅빈대풀은 영토확장의 꿈을 지니고 있다는데

이 땅빈대는 영토확장의 꿈을 지니고 태어난 풀인지도 모른다. 옆으로 옆으로 가다보면 사람이나 짐승에게 밟히거나 줄기가 끊어지는 수난을 당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흥성, 예산에서는 땅빈대풀을 가리켜 광개토대왕이라는 위대한 풀로 낙인을 찍어 또한 광개토대왕이라는 관사를 붙여주었다. 땅빈대는 땅바닥에 붙어살면서도 모두가 고난속에

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다. 땅에는 술한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따라서 짐승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쏘다닌다.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밟혀도 초연해지는 듯 싶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땅에 바짝붙어 생식하다보니 밟히거나 부러지는 경우는 없는 것이 아닐까한다. 기세 좋게 위로만 치닫는 다른 풀들과는 전혀 다르다. 모든 잡초는 속인들처럼 위로 위로 기세 좋게 치솟아 오른다. 하지만 땅빈대풀은 대지를 확장하려는 듯이 자꾸만 자꾸만 옆으로 퍼져나간다. 거칠고 메마른 땅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땅빈대풀의 성질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밟히면서 생존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 땅바닥을 기는 이 땅빈대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옆으로, 앞으로 상하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번성하는 것이다. 땅바닥을 기는 곤충이 개미이다. 이 개미가 신기하게도 땅빈대의 꽃가루를 날라다 준다.

## 식물의 꽃가루는 벌이나 나비가

대체로 식물의 꽃가루는 벌이나 나비가 나른다. 그런데 땅빈대의 꽃가루를 개미가 취하기 때문에 가루받이는 자동적으로 개미가 모여들어 입



출처 :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

술에 꽃가루를 묻히게 된다. 개미들은 꽃향기를 맡으면서 모여든다. 그러므로 다른 식물들처럼 씨받이를 향한 꽃가루를 위해 잎이나 꽃에 아름다운 빛깔로

장식할 필요가 없게된다. 땅빈대의 꽃은 수술 한 개, 암술 한 개로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땅빈대의 상대는 개미일 뿐이다.

## 땅빈대풀 약초의 효능

세상의 모든 풀잎과 나뭇잎은 인간의 약초로 사용된다. 다만 그것이 오용, 남용될 때에는 고통도 따르게 된다. 아니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위에서 말한 땅빈대풀은 암예방에 중요한 약재로 쓰이므로 곧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풀은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꽃가루를 술한 개미들이 총동원되어 물어 나르기 때문이다. 이 땅빈대풀은 열을 제거한다고 이미 한의약에 밝혀졌다. 아울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지혈도 시킨다. 세균성 설사, 장염, 혈변, 황달, 옹종정창에도 효능이 있다고 전한다. 최근에는 암 예방에 좋다고 하여 산야에서 대습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풀을 뜯어다가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들어 환약을 만들어 복용한다고 한다. 약초의 효능만을 믿고 무작정 먹는일은 보건의학상 조심할 일이기도 하다.

## 학성산의 물길

학성산에서 내리는 물은 청양군 화성에서 내리는 물이 여양천으로 흘러온다. 홍성군 천태리에 가면 비봉면 관산리 지역에서 흐르는 물과 합류되어 무한천으로 간다. 무한천은 광시 하장태리를 거쳐 다시 봉수산에서 내리는 물과 합류한다. 이렇게 흐른 물이 대흥면 소재지 즉 예당저수지에서 저장되어 예산 오가 일원과 당진 평야의 젖줄이 된다.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삼·춘·산



## 삼존산이 어찌하여 삼준산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역사란 두 갈래가 있다.

첫째로 기록이 부족한 시대에는 그것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구전은 전해지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정신이 가미되는 수가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하지만 그 시대가 안고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요구를 적당히 가미를 한다. 실제 역사를 전하는데 위험한 요소도 지니고 있다.

둘째로, 역사는 정확한 문서나 기명(記名), 묘지석 금석문에 사실 자체를 그대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가 왕조사나 야사를 통하여 나타나듯 변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역사란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양면 모두가 자기주장이나 자기편의 유리하게 기술하고 싶은 유혹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기술에서 엄격한 사실이어야 함이 요구된다.

## 역사라는 것은 자기주장이나 자기 편의대로 기술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

이러한 의미에서 삼준산이냐, 아님 삼존산이냐가 역사서나 지리서에 먼저 기록되었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옛 지명이 어찌하여 근대에서부터 오늘에 와서 삼준산으로 바뀌어졌는지 그 까닭이 밝혀진 기록이 없다. 그냥 삼존이 삼준으로 발음이 변이된 것이 아닌가 싶다.

원래 「신증동국여지승람」 흥주목 산천조(山川組)에 “삼존산이 주(州) 서쪽 17리에 있다”는 뚜렷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 같은 책 불우조에도 삼존사(三尊寺)가 삼존산에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원래 삼존이 확실한 것으로 입증되는 셈이다.

그러나 1968년 흥성군에서 발간된 홍양사(洪陽寺)의 기록을 보면 삼존산(三尊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 삼존산은 가곡리에서 주산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삼존산(三峻山) 압휘봉(壓輝峰)은 두 갈래로 나뉘어서 가곡리(嘉谷里)의 주산이 되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다가 가곡리와 운곡리의 경계에서 남쪽 봉우리가 솟아났는데 이것이 운교봉(雲橋峰)이다. 운교봉에서 불과 60보쯤 떨어진 곳에 각진 바위가 양쪽으로 공중에 떠있는데, 일명 운교(雲橋)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남쪽으로 뻗어가다가 우뚝 솟은 봉우리가 명덕봉(明德峰)이다.

명덕봉에서 서쪽으로 평행하여 좁은 골짜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대기재이다. 여기에서 또다시 우뚝 솟아서 이름없는 높은 봉우리가 되었고, 아홉구비 산줄기가 서쪽으로 뻗어갔는데, 서쪽으로 향해 뻗어간 한줄기가 솟아올라서 병암산(屏岩山)이 되었다. 삼준산의 또 한줄기가 서쪽으로 향하여 대사리를 지나 갈산면 취생리에서 봉화산이 되었다.

봉화산은 고려시대에 고구현의 옛터로서 고구성지가 있는데 여말 이래 봉화대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한 줄기 산맥은 서산시 고북면 마미산이 되었고 다시 봉우리가 솟아서 노적봉이 되었다. 남으로 십리가량 달려가 삼불산이 되었다. 삼불산은 갈산면 상촌리의 서북쪽 주산이다.

삼준산은 해발 490미터이며, 홍성군 갈산면과 서산시 고북면, 서산시 해미면에 걸쳐있는 산이다. 높은 산봉우리 세 개라 형제처럼 나란히 있



해동지도 갈산지역 일대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삼존산을 삼존산(三尊山)으로 불렀다고 한다.

동막마을 바로 뒤쪽에 삼존산의 주봉이 위치해있다. 삼존산에는 여러 지명과 함께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삼존사지가 있다.

### 욕심을 억제하라는 뜻을 가르치는 산

산속에 묻혀있는, 아니 산과 함께 생존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크던 작던 우리 인간에게 설화(說話)를 제공한다. 그것들이 보잘것없는 풀이라도 우리 사람들에겐 크나큰 교훈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 삼존산에도 예외없이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라는 지엄한 옛이야기를 들어봄직하다. 이 이야기 금전만능, 물질주의에 젖어 살아가는 오늘에도 우리의 자세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전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삼존산 아래 마을에 장님이 살았다. 비록 장님이었지만 착한 아내를 만나 젓먹이 딸과 단란하게 살았다. 그런데 병약한 부인은 원인불명의 병으로 남편과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먼저 떠났다. 장님이 눈이 보이지 않아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곤경에 처한 장님이 산기슭에 암자에서 살고있는 스님을 어름어름 찾아갔다. 암자의 스님에게 눈을 뜰 방법이 없겠는가 질문했다. 한참동안 천정을 바라보던 그가 입을 무겁게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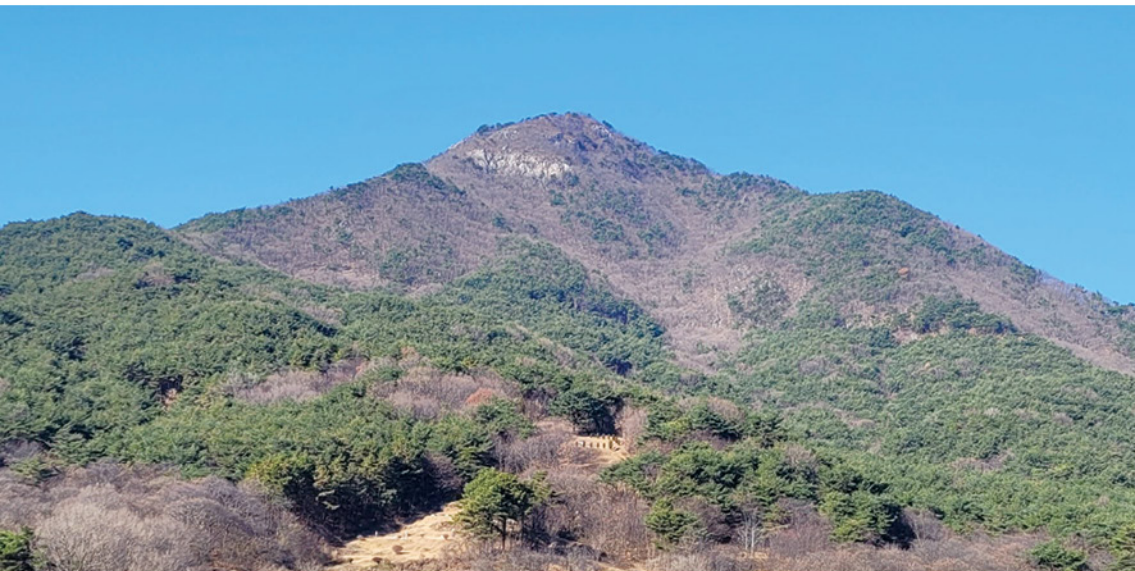
“있긴 있지만 그게 어려울게야. 매일 목욕 재계하고 100일간 부처님

을 부르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보시게나... 나무아미타불...”

장님은 그 스님의 가르친 방법에 따라 매일 목욕재개하고 부처님과 산신령한테 기도를 했다. 마침내 100일이 다 되자, 그만 장님의 꿈에 허연 수염에 꼬부랑 지팡이를 짚은 채 안개 속에서 뚜렷히 지시했다.

### 슬픈 전설은 품고 있지만 명산은 명산

“그대 정성된 마음과 기도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일러 준다. 산꼭대기에 있는 험한 구름다리에 올라가 그 다리를 서른 세 번 왕복하여 건느거라. 주의하건대, 그 다리를 건널 때 쓸데없는 욕심을 마음에 두지 말고 도중에 오직 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대로 행하면 되느니라. 그러니 목적인 그 외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기를 당부하네...”



장님은 그 계시에 따라 서둘러 구름다리로 올라갔다. 희망에 부푼 장님이 산신령이 가르쳐 준 대로 서른 두 번째 구름다리를 건너자 희뿌연 게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이게 웬일인가. 눈앞에 산삼 세 뿌리가 절벽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게 아닌가...

“아니, 이런 횡재가!”

장님이 산삼이 있는 곳에 손을 대자 그만 장님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다음에 그 산의 이름이 삼존산이 되었다고 전하는 곳이다. 세 뿌리 산삼이 절벽 높이 존재하여 일설에 삼존산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전설이다. 이 전설이 진짜냐, 아니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삶속에 존재하는 탐욕에서 불행은 싹이 튼다는 교훈은 아닐까.

### 별은 언제나 별이라네 - 김복한 선생 생가터 -

우리 조상님들은 흔히 인물의 탄생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눈을 감을 때는 반드시 출생지 산을 화두에 올리곤 한다. 이는 예부터 풍수에 대한 비기(秘記)를 내세워 고장의 인물과 결부시키곤 한다. 이 김복한 선생 또한 예외가 아니다. 김선생도 삼존산 기슭 조실공에서 1860년에 태어났다. 32세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합격을 했다. 홍문관 교리에 이어 이듬해에는 사서에 이르렀다. 청렴하고 매사에 단정하여 성균관 대사성에까지 올랐다. 그리고 성균관 대사성·형조참의 승정원 원승지에 오른 분이다. 그런데 김복한 선생은 1894년 접어들어 일제로부터 내정 간섭으로 견디기 힘들자 정계에서 은퇴, 고향으로 낙향했다. 하지만 나

라사정이 혼란에 빠져 1895년 민비시해 사건과 강제 단발령이 내려짐에 따라 전국 곳곳에 의병이 일어났다. 이곳 홍주에서도 김복한 선생이 의병의 중심이 되어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일본 제국주의와 손을 잡은 친일파를 처단하기로 했던 당시 관찰사 이승우의 배신으로 홍주의병은 참배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지산 김복한 선생은 후진양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905년에는 예기치 못했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김복한 선생은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역신들을 처단해달라는 상소문을 왕에게 올렸다. 이 상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감옥에서도 온갖 고통과 압제 속에서 살다가 석방되었다.

그러나 김복한 선생은 1906년, 그리고 1907년 의병활동과 민심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붙여서 재투옥시켰다. 그러함에도 김복한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하는 전국 유럽대표를 파견하여 또 다시 공주 감옥에 투옥시켰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선생은 흥성 서부면 이호리에 ‘인지사’라는 학습기관을 설립했다.

여기에서 국가 동량될 인재육성과 독립정신을 제자들에게 심는 교육 활동에 열정을 바쳤다. 하지만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24년 65세의 나이로 아쉽게 세상을 떠났다.

선생의 묘소는 서부면 이호리에 있다. 승정원 승지까지 지낸 김복한 선생의 애국정신과 교육으로만 나라의 동량을 기를 수 있다는 의지는 결국 1945년 해방으로 실현된 셈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옆으로 단결된 힘이 결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아닐까한다.





## 삼준산의 식물들

삼준산의 나무들은 가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 수량과 이름이 높은 귀목들이 울울창창하여 가히 도립공원이 되고도 남을 국가정원이다. 일제하에서 해방되고 그 혼란기 속에서도 나무들은 서로 분탕질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말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삼준산의 그 장엄한 숲은 2009년 5월 산불에 의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말았다. 당시의 산불을 인재로 추정할 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에 갈산에 살았던 소나무, 갈참나무, 보리수, 물푸레나무, 참나무, 밤나무들의 이름이나마 불러본다.

## 참이 많아 갈산이라고

만수산이 아니라도 칩덩굴이 참이란 풀은 겁이 없는 식물이다. 땅에 줄기가 닿으면 백로절기가 올 때까지 뻗어나간다. 뻗어나가는 특장도 대단하지만 나뭇가지나 숲에 칩덩굴이 닿는 경우에 역시 서리발이 하얗게 내리는 만추까지 덩굴을 칭칭 감으면서 뻗어나간다.

갈산이 왜 갈산이냐하면 칩처럼 뻗어나아가기는 백성들의 끈질긴 투지의 인물들이 나왔다는 노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게 아닌 듯싶다. 옛날 갈산 상촌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포구였으니 물이 바다로 가기 위해서 배가 파도치는 망망대해를 칩덩굴처럼 뻗어가자는 뜻이 담긴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설이 존재해 왔다고 노인들이 전한다.

칩덩굴은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속도뿐 아니라 뻗어가는 힘도 타식물에 비하여 강하다. 참이 타고 올라가는 키 큰 나무들도 휘감아





죽여버릴만큼 힘이 세다. 칩의 영토는 닿는 곳이 자기의 땅이 되어버린다. 언덕빼기나 평지나 돼지우리 전선기둥 그 어디든지 휘감고 올라간다. 이런 칩에게는 다른 식물과 다른 것이 두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칩은 가까이 있는 풀이나 나무를 타고 오른다. 또 한가지 특징은 칩의 뿌리에 있다. 칩은 뿌리가 다른 식물에 비해 크다. 굵은 놨은 어른 머리 통만한 놨도 있다. 이 굵은 뿌리에 다량의 에너지, 즉 힘을 축적해 둠으로 타 식물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게 칩은 논밭을 뒤덮는 성질이 있으므로 땅주인의 눈엣가시가 되지도 했다. 하지만 가난한 시대의 농촌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아이러니도 지니고 있다.

칩은 칩국수의 재료로, 칩떡, 칩차의 재료, 감기약의 주 원료인 갈근탕이 바로 칩으로 만들어진 한약이다. 우리는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칩덩굴을 잘라서 깻단을 묶는 끈으로 썼고, 나뭇단 묶기도 했다. 그리고 섬유를 빼내어 갈포를 짜는데 썼다. 이 칩은 향기가 높아 샴푸를 만드는데 쓰이기도 한다.

갈산이라는 지명이 이 무성한 에너지를 지닌데다가 삼준산 아래 마을 박종민시인의 인기처럼 곳곳마다 뻗어나야가고 있다.

## 삼준산 물길

삼준산은 세 갈래의 봉우리에서 싹뿔줄같이 골짜기로 물길을 내면서 서해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개울을 거친다. 그 개울은 시냇물을 만들어 마을의 이야기와 역사를 안고 강이 되어 바다를 향한다. 바다에 가면 너는 운교봉에서 혹은 명덕봉, 그것도 아니면 피골봉지나 명암산에서 왔는가를 묻지도 않는다.

바다는 온갖 사방에서 흘러온 물들의 본적지와 연고를 묻지 않는다. 그게 바다의 생리이고 바다의 본질이다. 삼준산에서 흐르는 물은 흘러 흘러 갈산 소재를 거쳐 와룡천에 흘러들어 천수만 A지구로 간다. 결국은 대한민국 서해를 통하여 태평양으로 흐른다는 사실앞에 결국은 물은 합수되는 생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월산



## 홍성주민들의 기원하는 제천의식??

### 월산(월산)이 지니고 있는 명성

바다가 동적(動的)이라면 산은 정적(情的)인 이미지이다. 그래서 옛 시인은 월산은 어머니의 품이라고 예찬했는지도 모른다. ‘품어준다’는 말은 따뜻하게 보듬어주면서 격려해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간이 삶에 보듬어준다는 단어보다도 더 따스한 말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최후에 쓸 수 있는 말은 아마도 보듬는다는 말일 것이다. 어머니의 품은 너그럽고 따스하고 정겹다. 거기에다 홍주의 진산(鎭山)이 월산(月山)이라니 시적인 이미지가 확 되살아난다.

월산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백월산’이라고 칭하고 또는 시적인 의미



1872년 지방지도 서부지역 일대

로 해님이산, 혹은 일월산 그것도 아니면 해거름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단어 자체가 풍기는 이미지와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해석의 권리는 이 글을 수용하는 독자에게 있다.

월산은 백월산, 일월산으로 쓰인 명칭속에는 뒷산, 풍수에서 흰색을 서쪽산, 혹은 음지산(陰地山)이라는 개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진산이라고 하면 도읍이거나 읍성, 또는 취락구조상 큰 마을 뒷산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중심적 근거로 삼는다는 뜻이었다. 중심적이라는 말은 인문학적으로 문화적, 정신적 지주가 되는 공간적인 장소를 말한다.

### 홍주읍성을 월산에서 바라보면 서들 광문이 한 눈에

홍주 읍성의 진산인 이 월산은 해발 394미터나 되는 비교적 큰 산이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 서쪽으로는 광활한 천수만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에는 홍성 시가지가 광활하게 펼쳐진다.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합덕 평야, 즉 서들 광문이 발 아래 펼쳐진다. 이런 아름답고 진귀한 땅을 지닌 내포평야는 사실상 바람이 잔잔할 날이 없었다.

강대국이란 외세는 총칼을 앞세워 협상을 강요했고, 속국으로 삼아 조공을 요구했다. 중국은 대국이라 하여 노예와 성노리개로 백성을 공납하라고 울러댔다. 임진왜란을 비롯한 병자호란, 청일전쟁, 노일전쟁이 모두 우리의 앞마당에서 벌어졌다. 거기에서 한일합방 이후 36년이라는 식민지 또한 뼈아픈 역사를 지닌 민족이 또한 우리이다.

이를 되새기면서 장래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염원의 제사터가 이곳

월산에서 거행되었으며 지금도 해마다 첫날 제천의식이 진행중이다. 또한 홍성 군민들의 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성화 점화지가 월산 정상이다.

전국의 산악인들이 모여들어 시산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군민들이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장소가 이 월산에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 월산을 홍주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삶의 터전으로 숭모하는 산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컫는 진산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한다고 하겠다.



홍성군은 충청남도 중서부에 위치해있고 군청 소재지는 홍성읍이다. 행정구역은 3읍 8면이다. 홍북읍은 2012년 내포신도시로 이전되었다. 면적이 443.9 제곱 킬로미터이고 인구는 10만이지만 도청소재지로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월산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주변은 아래와 같다. 홍성읍 월산리, 갈산면 갈오리, 구항면 황곡리, 오봉리 홍북면 중계리이다. 월산은 서울의 삼각산처럼 불교문화가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산혜암은 신라 문성왕 때 무염선사(801 ~ 880)가 창건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월산암, 월산사로 불려왔다.



## 아쉬운 월산 성지(月山 城址)

김정헌 구비문학 연구자인 작가에 의하면 월산이 옛날에 해풍현성(海豐縣城)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풍현은 고려시대의 현으로서, 지금 월산의 동쪽 산혜암 아래 경사지 부근 아래로 추정하고 있다. 해풍현 관아는 현재의 홍성읍 쪽으로 이전되었다는 구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풍현성은 역사적 관점에서 견훤군대와 왕건군대가 전투를 벌였지만 마침내 왕건이 승리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그 역사적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원래 산성(城)이란 유사시 적을 방어하면서 산위에서 적들이 침입하는 경우 전투를 목적으로 쌓은 곳이며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성지는 적군이 항전하기 힘든 요충지 급경사 지역에 설치하는게 전략상 한 방법이다. 이 해풍현성인 월산산성은 성 주위가 비교적 긴 9700척에 우물 개소리라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밝혀져 있다. 아쉽게도 현존하는 당시의 축성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 홍주성의 역사와 지명(地名)을 운주(運州)로 불렀다는 기록이

홍주성은 읍 한가운데 쌓았으므로 유성에 해당된다. 축성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쌓은 위치나 기능으로 볼 때에 통일신라 말기에 쌓은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에 홍성 지명을 운주(運州)로 불렀다. 운주 지역의 호족세력이었던 금준이 쌓았다는 설이 유력하다. 홍주성 처음의 규모는 길이는 1300여척이다. 이 토성은 2011년 복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홍주성 1870(고종) 홍주목사 한응필이 고쳐 쌓았는데 각 사방에 문루까지 세웠고 각 고을에서 석공을 차출하여 공사에 참여시켰다고 한다. 동원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석산이 있는 남포 30명, 보령 20명, 온양 15명, 서산, 태안, 해미, 결성, 덕산, 청양, 비인등지에서 각 10명이 차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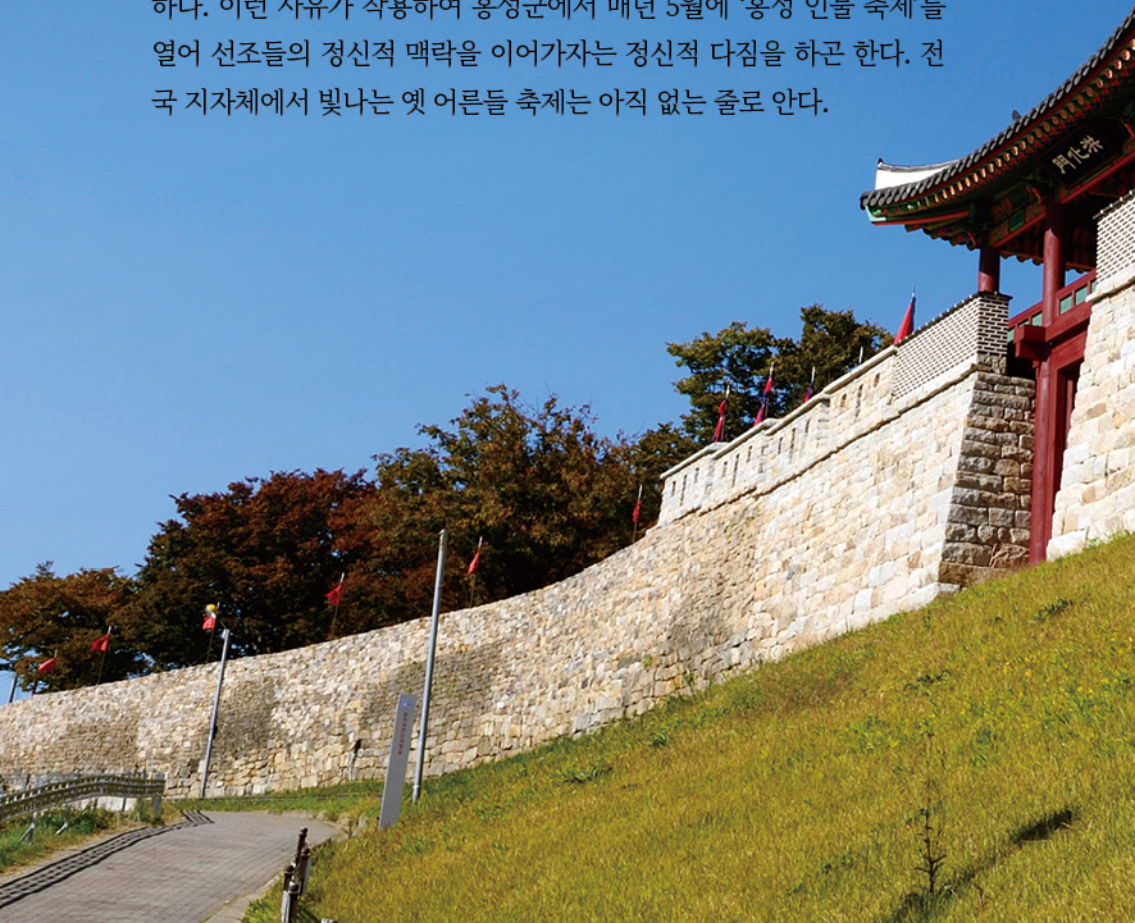
조선시대 홍주는 충청도 공주·청주 충주와 더불어 4대 고을중에 하나로 그 위상이 높았다. 그 위상에 따라서 홍주는 내포지역을 통괄하는 고을이었다. 말하자면 목사가 상주하여 정치, 국방,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홍성은 고려시대에 운주라는 지명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1018년부터 홍주로 바뀌었다. 홍주로 이름이 바뀐지 1000년, 홍주로 불려오다가 다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홍성에 이르렀다.

홍성은 1000년 역사를 지닌 소도시로 존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에 대한 역사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금도 홍주라는 지명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뛰어난 인물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내세우는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홍주의사충, 홍주의병, 홍주성이라는 논거는 곧 홍성이 내포의 지형적인 방어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공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서해바다와 가깝고 충청수영이 곧 홍주목사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적 역할도 다해왔다고 본다.

이렇게 크고 작은 전화(戰禍)와 소용돌이 속에 뛰어난 인재로서 그 책임과 의무로 다했다는 사실이다. 불의와 타협하거나 비굴한 처신이 없이 국난의 극복에 전심을 다했던 인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 정신적 지주를 함양하게 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 명산의 정기가 인물로 변이된 현상이다?

최영장군, 성삼문선생, 김복한선생, 김좌진장군, 만해 한용운 선사 등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홍성에 1000년 역사에 인물 풍년이라 할만하다. 이런 사유가 작용하여 홍성군에서 매년 5월에 ‘홍성 인물 축제’를 열어 선조들의 정신적 맥락을 이어가자는 정신적 다짐을 하곤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빛나는 옛 어른들 축제는 아직 없는 줄로 안다.



## 홍주 관아(官衙)

홍주성 안에는 애초에 35동의 관아 건물이 존재했으나 지금은 조양문, 홍주아문, 동헌, 여하정 등 4개의 건물만이 존재한다. 이외 건물들은 2024년까지 복원계획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 이 홍주유성은 국가지정 사적 231호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다고 한다.





여하정



## 월산의 식물 - 민들레 -

흔히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로 알려졌다. 나라를 잃고 생명을 보전하고 고국을 떠난 유민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 곧 민들레이다. 물론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하다. 그러므로 척박한 땅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잘 자란다. 그러면서도 바람결에 포자가 날려 씨앗을 땅에 정착시킨다. 민들레는 두 종류가 있다. 우리 민들레와 서양에서 유입된 민들레가 있는데 쉽게 분별이 가능한 민들레가 우리 꽃 민들레이다. 왜냐하면 우리 꽃 민들레는 봄에만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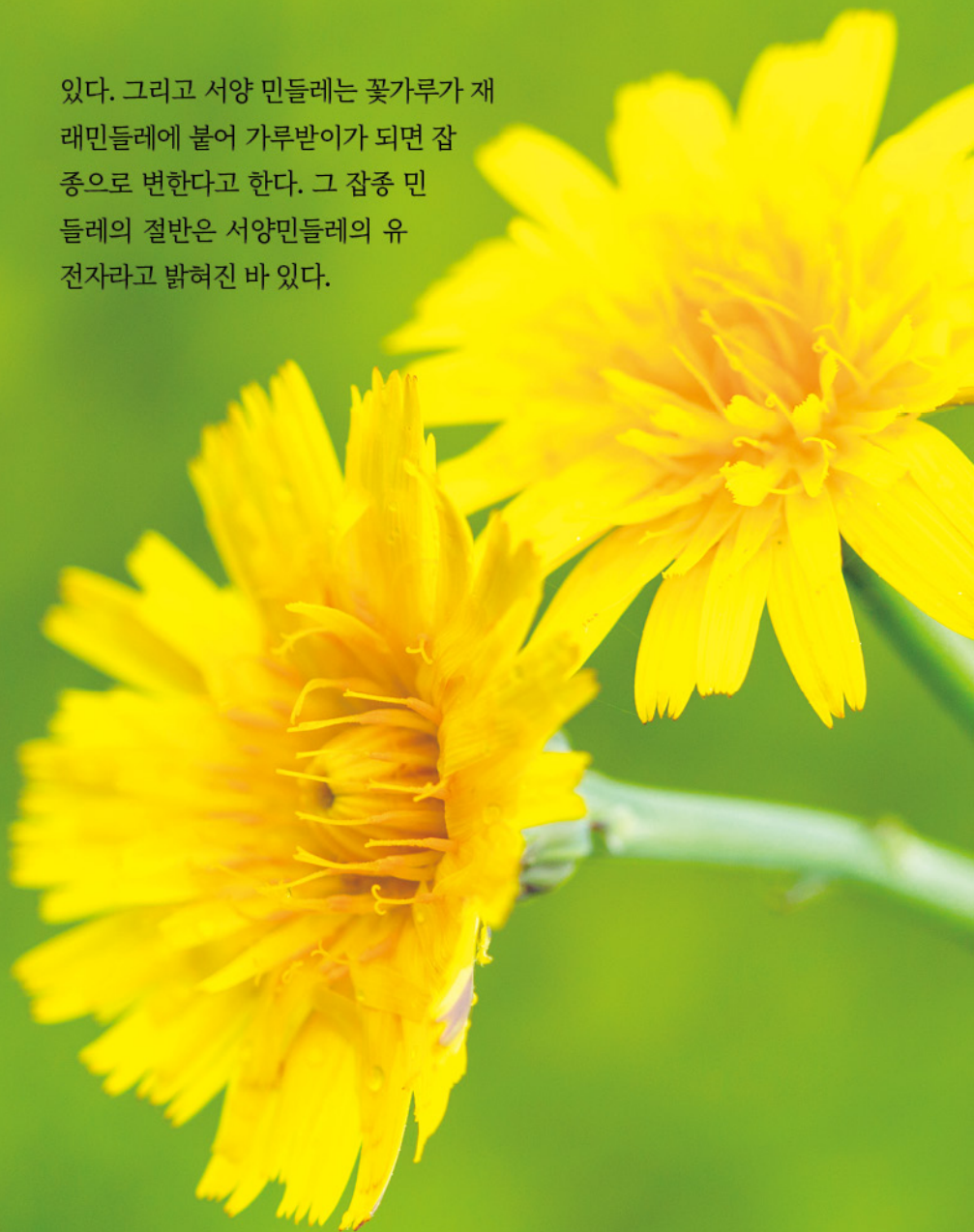
그러나 서양꽃 민들레는 일년 중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에 언제라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재래종 민들레는 꽃도 작고 씨앗의 수도 적다. 그러나 서양 민들레는 꽃판도 크고 생산되는 포자의 수도 많다. 그러니 씨앗이 작고 가벼워서 번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많은 민들레 연구자들에게 밝혀진 바 있지만 서양 민들레는 보통 씨앗이 아니라 코론 done 유전자에 의해 씨앗을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다. 클론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말은 가루받이를 할 수 있는 상대. 즉, 매개가 없어도 혼자서 숫자를 늘려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낮은 땅 어디든지 세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능력있는 번식력을 상당하다고 하겠다.

## 민들레도 재래종과 외래종이 있어

일본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서양 민들레는 도시쪽에 많다는 것이다. 환경이 파괴된 곳에서도 서양 민들레는 잘 생존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서양 민들레는 꽃가루가 재  
래민들레에 붙어 가루받이가 되면 잡  
종으로 변한다고 한다. 그 잡종 민  
들레의 절반은 서양민들레의 유  
전자라고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재래식 민들레는 잡종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리는 아쉬워하고 있다. 월계천 독으로 봄이면 술한 재래종 민들레들이 피는데에는 이유가 있는 듯 싶다. 홍주성으로 월계천 독에는 술한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무참히 참수를 당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홍주성 북문 밖 200미터 지점이다. 월계천이 북문교와 만나는 장소이므로 처형지로서 조건이라고 향토 역사학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홍주 감옥에서 처형된 순교자들이 생매장 당한 장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처형된 순교자들의 묘역도 대교공원 부근이기에 이 부근이 참수터가 아닐까 싶다.

월계천에서 불과 1킬로 지점에는 홍주 의병들이 순국한 의병들이 안장된 의사총이 있으므로 그들의 영혼처럼 민들레가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슴이 무겁다. 민들레, 노랫말 가사처럼 일편단심으로 피어난 민들레가 월계천 독에 저렇게 떼지어 얼굴을 내미는 모습에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하게 하는 것 같아 부끄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어찌 나만의 독백일까.



월계천 좌측으로 홍주향교 그리고 그 곁에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한다고 일어난 의사들의 거룩한 정신이 깃든 무명의 의사총이 있다는 것은 홍주성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사적들이 아닌가 싶다.

## 월산의 물길

월산 골짜기를 내리닫는 물줄기는 홍주성 북문 앞을 거쳐 의사총을 지나 홍성역을 끼고 오른쪽에 금마천과 합류하여 삼교천을 향해 서해로 흘러든다. 내포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나 호수가 육지를 향하여 깊어 들어간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글로 풀어서 말하면 안으로 들어간 배가 닿는 곳이다.

그렇다. 배가 닿는 포구나 항구는 배가 출발하고 정박하는 곳이다. 동서양 6대주를 향하여 출항하는 기항지는 어제도 오늘도 부산스럽고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청 소재지 흥복읍은 미래의 꿈을 지니고 용솟음치는 듯 싶다.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청·룡·산



## 산과 세속의 거리 청룡산 - 청룡산에는 청룡은 있는가? -

어럴러럴 상사리, 어럴러럴 상사리 헤헤헤이야 상사리여  
한일자도 들어서서 입구자로 심어보세  
스마지기(세 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었구나  
반이 되어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이 논배미 얼른 심고 장구배미 넘어가세  
오늘 해도 다갔는지 골목골목 연기난다  
어럴러럴 상사리, 어럴러럴 상사리

우리는 지난세기 동안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농자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산업화 이전에 우리는 벼농사, 보리농사에 의지하여 삶을 영위했다. 흉년이 들거나 재해가 닥치면 풀씨를 훑거나 나무 열매로 대체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논밭에서 씨앗



제사에 쓰이는 기구들

을 파종하거나 모내기를 시작하는 경우 풍년을 기원하는 토신과 곡신에 제사를 지냈다. 힘겨운 노동에 지치면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두레마당에서 신명 좋은 사람이 선창을 하면 따라서 집단적으로 화답을 했다. 그것이 바로 충청남도 결성농요(結成農謠)이다. 1996년 11월 30일 충남의 무형문화재 제 20호로 지정되었다. 1991년에 재현되었고 1993년 제 34회 전국 민속경연대회 종합 최우수 대통령 상을 수상했다. 농요주제는 용신제, 모내기, 건쟁이, 뚝매기, 아시매기(논매기), 실참, 만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일반적이다.

결성농요는 순수 우리 가락이며, 근래에 들어와 옛 노래와 두레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모내기 소리인 ‘어러러럴상사리’와 논매기 소리인 ‘얼카덩어리’ 또는 두레소리등은 결성지방에서 자생한 소리이다.

## 결성농요는 아홉개의 마당으로 구성

모내기 소리는 모를 심고 15일 정도 지나서 논물을 빼고 잡풀을 손으로 건져내면서 부르는 건쟁이 소리(밀 가는 소리)는 드문 노래이다. 결성농요는 농사짓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아홉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용신제를 발단으로 모심기, 건쟁이 뚝막이, 아시매기 실참놀이 만물, 일마치고 행진 한마당 큰놀이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결성농요는 민속놀이로서의 60여명의 단원들은 전국을 넘어서 해외초청 연회 참가로 우리 전통축제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4월에 결성농요 상설공연장이 개관되어 공연 보존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결성농요 기능보유자도 최관순 - 최양섭 - 장성철 - 조광성씨에 이어 전통의 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산으로 간다. 문헌 사람의 이름값이 곧 산의 명성에 비례한다. 청룡산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관아나 관사가 어느 골짜기에 들어섰는가에 따라 그 고을도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것이 일종의 산의 메커니즘이라 하겠다.

요즘은 세월이 하 수상하여 사람이 세상을 떠나 재가 되면 뿔가루를 바다에 뿌리는 극중 주인공을 자주 보게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습이 아닌가 싶다.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지닌 이치가 아닐까한다.

## 청룡산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다가오고 있어

청룡산은 임득의 장군의 묘소가 좌정함으로 군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이 되고 있다. 이는 고무적인 현상의 하나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 마을에 잠든 어른들의 유적이거나 그분의 업적을 기리거나 알리는 일은 자랑스런 일이다. 청룡산 기슭에 정충사(靖忠祠)가 있다. 이는 정난



청룡산 임득의장군 묘

공신 3등에 녹훈된 임득의(1558~1612) 장군 사당이 있다. 임득의 장군은 임진왜란중인 1596년(선조 29)에 이몽학의 난을 집압한 장군이다. 1612년 54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묘소를 경기도 양주에 안정했다. 사후에 정 2품 자헌대부에 추증되었다.

1632년 임득의 장군의 묘를 경기도 양주에서 이곳 서부면 판교리에 청룡산 기슭으로 이장을 했다. 이 정충사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401호 장군의 묘는 문화재 340호로 지정고시되었다. 임득의 장군 초상화 충남 유형문화재 203호이다. 정충사에 노송 한 그루가 유래깊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장군송이 일품으로 사로잡아

이 소나무의 명칭이 장군송이라 한다. 임장군 묘소 이장후에 3대에 걸친 과거급제자가 배출되어 기념수로 심었다고 한다. 2012년 보호수로 지정될 때 당시의 지정자료에 수명이 250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졌다. 흉고 2.1미터 높이 15미터 정도가 된다. 임득의 자군의 중조부(中祖父)가 임형수(林亨秀)(1514~1547)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한다.



임형수는 18세의 어린나이에 진사시에 급제했다. 22세에는 별시 문과에 급제에 이어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제공하는 독서당의 일원으로 사가독서를 했다. 당대의 동기들은 하서 김인후, 퇴계 이황, 송재 나세창 등이다.

그런데 당대에는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당쟁이 극심했던 시절이었는데 임형수는 부제학에 올랐으나 당쟁의 안타까운 희생양이 되었다. 명종 때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실권자인 윤원형 일파에 의해 제주 목사로 좌천되었다가 을사사화로 파직되었다. 제주목사 파직 후에 양재역 벽서사건이 터지면서 대운파 윤임의 일파로 몰려 사약을 받고 억울하게도 삶을 마감해야 했다.

이 당시 임형수의 절명을 안타까워하며 김인후가 지은 ‘낙락장송’이란 말시 시조가 있다.



엇그제 버한 솔이 낙락장송 아니런가  
저근덧 두던들 동량재가 되리러나  
어즈버 명당이 기울면 어느 남기 버티라

이렇게 당대의 대 학자들은 대들보, 즉 동양이 될만한 낙락장송을 베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비유였다.

임득의 장군 후손들은 선조들의 행장에 따른 삶을 지켜 살아오고 있어 만인의 칭찬을 받고있다고나 할까...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홍주 항일의병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임한주를 비롯

한 8명의 독립 유공자를 배출하여 충의보훈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임한주 선생은 남당 한원진 학풍을 이어받은 제자로서 홍주의병의 기록인 「홍양기사」를 기술했다. 이 홍양기사는 홍주의병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청룡산의 나무와 식물들

소나무, 서어나무, 등메, 팽나무, 물푸레나무, 때죽나무, 신갈나무, 층층나무, 산초나무, 비목나무, 느티나무, 졸참나무, 낙우송,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이 다양한 종이 그러나 비목, 낙우송은 이 서부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이 아니고 최근에 식재한 인공림 조성으로 보인다. 흉고 직경 20~25cm이하로 자라있기 때문이다. 이는 흥성군내에서 가장 높은

오서산을 제외하곤 해발 600미터 미만으로 완만한 구릉을 이루고 있다. 한반도 전체 평균고도인 482미터 훨씬 못미치는 100미터이다. 이에 인근 마을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워 훼손되어 최근에 외래종으로 식재한 것이 많이 눈에 뜨인다.

### 꽃 질경이는 왜, 이리 풍년인가?

청룡산 기슭에는 그 흔하되 흔한 질경이가 많다. 하도 많아서 지천(至賤)이란 말도 할 수가 있다. 전국토 산이나 들, 길가에 흔히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다. 풀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무시하는 경우가 흔한 표현으로 다반사이다. 그러나 이 질경이는 풀가운데에서도 질경이는 차전자로 자피초, 우모채, 길장구, 배부장이 등 20여개의 이름으로 불리웠다. 이런 여러개의 이름을 지녔다는 것은 그만큼 쓰임새도 다양해서 불리웠다는 증거이기도하다. 질경이는 부드러운 잎과 줄기는 나물로 먹었다. 그리고 씨는 이뇨제로 쓰였다. 한방 민간에서는 풀 전체를 차전초라 했다.



진해, 소염, 이뇨, 안질, 강심, 임질, 심장염, 태독, 난산 출혈, 해열, 지사, 요열, 종독, 칼 등의로 다친 상처에 다른 약재와 같이 처방하여 쓴다. 질경이는 화강암계, 화강편마암계, 반암계, 편상화강암계, 현무암계, 경상계 변성퇴적암계 등 땅에서도 잘 자란다. 이 질경이를 갈짚귀실 장구 등으로 불리우는 것은 개구리의 배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꽃 질경이는 왜, 이리 풍년인가?

개구리가 기절했을 때 질경이 잎을 따서 개구리에게 덮어놓으면 살아난다는 민간 설화가 있다. 질경이는 단란한 땅, 사람이 많이 다니는 땅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강한 풀이다. 이 풀에는 만성간염 치료에 효과적이라 한다. 그리고 건위제로도 놀랄만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우리 청룡산 기슭에서 자생하는 질경이는 창질경이, 외가지 질경이, 개질경이, 털질경이, 벌질경이 등이 다수 생식하고 있다.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삼·불·산



## 산은 산으로서 서로 품고 살아가네

‘산이 사람을 품었는가, 사람이 산을 품었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경쟁심리에서 비롯된 의견일 뿐이다. 이 우주에 속하는 자연들은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주장만은 결코 아니다. 신이 세상의 자연을 창조할 때 서로 보완적, 호혜적으로 살으라는 주장은 단순히 공자나 그의 제자들의 주장만도 아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믿는 이른바 성인들도 자연과 인간은 물여일체(物如一體)라고 강조했다. 서두에서 왜 산과 인간이 어디가 우위인가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하기 위함이다. 이 책의 핵심어는 사람과 자연이다. 즉 자연은 우리에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주제가 명산이 품고있는 마을의 생활문화라는 주제 아래에서 홍성군 갈산면 삼불산을 이야기에 앞서 이 산이 세상의 잣대로 해발 164미터이기에 말이다.

세상 사물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크기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순전히 양과 질과 효용을 무시하던 옛날 방식이기에 지적해둔다.

## 삼불산(三不山)이 왜 큰 산인가?

삼불산은 부처님이 셋이나 모셨다는 전설에서 유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불산 아래에 살고 있는 원로시인 박종민 선생의 주장에 의하면 삼불(三不)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엄한 신의 계시를 받은 착한 인간들이 존재하는 말이라고 한다. 박종민 시인은 시인이기 전에 갈산지역의, 아니 내포지역에 관한 민속연구 사진집을 출간했다. 그의 소개에 의하면 삼불을 절대지킨 사람들이 들어와 산다는 것이다.

첫째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불손하지 않은 자  
둘째로 나라와 민족을 탓하지 않는자

셋째로 남의 물건이나 남의 아내나 노약자를 상대로 물건 탈취를 앓는다는 것을 맹서한 주민들이 살던 곳이라고 전한다.

마을 평화를 주창하는 이데올로기가 재미있다. 이런 삼불산은 세계 명산 가운데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갈산에서 상촌리라니 그 이름조차 고상하고도 또한 중차대하다.

## 야산 전체가 암반이라는 조사보고서가

삼불산은 갈산면 상촌리를 활시위처럼 싸안은 야산에 가깝다. 이 야산은 예사로운 산이 아니다. 땅 50미터 아래에는 암반으로 된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핸드폰이 이 지역에서 통화가 안되는 특수지역이었다. 중계소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핸드폰조차도 불통지역이었는데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그 암반으로서 기초가 튼튼한 곳으로 이름이 나 있다. 삼불산 아래 와룡천 건너로는 행산리이다. 이 행산리 행산 아래에는 김좌진 생가와 기념관이 있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 76호이다.





##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에 뜨는 별

김좌진 장군, 여기 대명사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 그것은 만주 별판속의 청산리 전투가 떠오를 것이다. 항일무장투쟁에서 것처럼 혁혁한 공헌을 남긴 청산리 어랑촌 전투에서 일본군 1000여명을 처단한 업적은 우리 역사에 특별히 기록된 사실이다.

또한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벌인 맹개골 전투와 만기구 전투, 쉬구 전투, 고동하 전투 등에서 세운 전과는 모두 2500여명 북로군 정서군은 일본군 3만명과 전투를 벌였다. 그 가운데에서 1200여명, 중상 2100명



과 더불어 다수의 신식무기를 노획하는 등 일본 관동군 사령부에 큰 타격을 준 인물이 김좌진 장군이다.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충무공 이순신, 김좌진과 함께 애국적 승리의 화신으로 손꼽히고 있는 인물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좌진 장군은 자신의 집에서 부렸던 30여명의 노비를 해방시키면서 그 노비문서를 불태웠던 미담은 당시 양반 부족들한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간해방의 물꼬를 틀기도 했다.

## 직계 선조인 김상용의 후예

김좌진 장군은 충남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에서 1889년 11월 24일(음력)에 김형규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김좌진 장군의 가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김좌진 장군의 선조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의 11대손이다. 김상용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종묘와 왕자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다. 이듬해가 되어 강화도가 청군에게 함락되자 강화성 남문루에서 화약을 쌓아놓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순국한 충의 열사가 바로 김상용이다.

김상용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하자는 화의파에게 극력 반대한 척화파의 대표 인물이다. 그가 김상헌, 김상용의 형이다. 김상용은 형, 김상헌과 목숨 걸고 지조를 지킨 위인들이다. 이들 형제의 DNA가 바로 김좌진 장군에게 전이되어 충의 열사가 된 것이다.

## 기념관을 지닌 생가 터에 나라사랑 충전소로

기념관이란 일종의 추모 자료관이다. 자료에는 당시 위대한 인물이 직접 기록한 문서, 혹은 사용하였던 기물과 그의 생애를 함께한 사람들의 행장이 살아있는 곳이다. 선진국일수록 기록문화나 선열들의 업적을 기리는 공적(公的)기념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기념관이 생가터에 존재하고 있어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양양하고 이 에너지가 곧 민족의 우수성을 고양하게 되는 충전소임 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고 그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함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곳이 기념관이다.

## 어린이들에게는 전기·평전을 읽으므로 인성이 형성되어진다는 사실

최근에 아동문학가 김정헌 교장선생이 「김좌진 평전」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작업도 백야 김좌진이 남기 생애를 재구성하여 쓰여진 글이다. 이 또한 전시관에 기여하는 중요자료이다. 이 자료는 김좌진 이후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글이었기에 매우 유익한 글이었다고 필자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학생은 성장하면서 주변 인물이나 위인의 전기나 평전을 통하여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한 발전한다. 김좌진이 저렇게 훌륭한 인물, 불



백야 김좌진 장군의 장엄한 모습



멸의 장군이 되기까지에는 성장시절에 영향을 받은 이는 갈산지역의 한 인물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김광호라는 분의 개화사상과 민족의식을 영향이 작용했다고 전하고 있다. 김광호는 어린세대들한테 의병활동과 독립협회, 그리고 당대에 처한 시국의 문제점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김좌진의 젊은시절에 친구나 친척들한테도 김석범의 일화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김석범은 김광호의 조카라는 사실인데 이 사람 당시에 단발하고 다닌 인물이었다고 한다. 또한 김광호는 독립협회 활동에도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좌진의 결심과 그의 정신 세계는 김석범, 김광호의 영향으로 인했다고 보는 것이다. 1907년 김좌진이 갈산에 상촌리에 호명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도 호서지역 당시 서당 훈장의 계몽사상의 영향이었던 것이다. 호명(湖明)학교라는 이름은 교육을 통해서 호서지방을 밝게 비춘다는 결연한 목적을 표출했다고 한다. 당시 호명학교 설립에 관계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김병수, 김병익, 김병학, 윤필 등 이들은 당시에 관직을 맡고 있던 분들인데 대부분

안동 김씨 문중 인사들이 학교 설립에 협력했다는 기록도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주변 인물의 영향이 크고 그를 향하여 밀어주는 배경이 중요하다. 교훈을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다.

## 백야 장군은 애국지사들과 교류하면서 결사체 구성

장작불이 불담이 좋은 것이 땀 나무들이 영겨 그것들이 하나의 에너지로 모여질 때 그 힘은 엄청나게 퍼지게 된다. 혁명을 모의하든지 정권을 탈취하는 데에도 혼자보다는 결사의 단체와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큰 사건과 그 배후에는 가려진 인물들끼리 얽혀있다. 항일운동에 있어서 총칼을 휘두르고 무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데 혼자 힘으로는 성과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한계상황을 알아차린 김좌진 장군이 당연히 서울 쪽으로 옮겨갔다. 그것이 1908년부터 1910년까지는 서울 경복궁 근처에 기숙처를 정하고 서울의 애국지사들과 만나 뜻을 나누고 결사체를 구성하였다. 그의 활동무대는 한성신문과 기흥학회에 들어가 애국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창양행이라는 비밀결사체를 만들어 독립자금을 모금하는 역할에 나서기도 했다. 뜻있는 애국시민들이 익명으로 여기저기에서 자금을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 2년 6개월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11년, 3월에 백야는 밀정에 체포되었다. 2년 6개월 동안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혹한 옥고를 치르고 출옥했다. 1913년 9월에 고향 갈산으

로 낙향했다. 고향에서도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하다가 흥성 일경 헌병대에 수감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김좌진 장군은 1915년 다시 서울로 상경하여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였다. 당시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은 박상진이었는데 이 분은 대종교의 주요 인물이었다. 김좌진 장군에게 신앙적 영향과 독립정신 고취에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좌진 장군 역시 대종교에 입교하여 민족의식을 공고히 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항일운동과 민족의식에 열정을 기울이던 김좌진 장군은 1917년 9월에 만주 땅으로 망명을 단행하였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이제는 일본에 대항하는데 무장투쟁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자각을 했다.

평화적으로 대항하는데는 그 악독한 일본군한테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 김좌진 장군의 「단장지통」이라는 시 한편을 보기로 한다.

적막한 달밤에 칼머리의 바람은 세찬데  
칼 끝에 찬서리가 고국 생각을 돌구느냐  
삼천리 금수강산에 왜놈이 웬말인가  
단장의 아픈마음 쓰러버릴 길 없구나

이처럼 김좌진 장군의 결연한 투지와 열정으로 무장한 김좌진 장군의 대한광복회의 조직망이 일경에 포위되었다. 이로 인하여 광복군 총사령관은 마침내 일본군에 사형을 당하고 조직망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1918년 12월에 애국지사들이 다시 비밀결사로 무오년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함과 동시에 1919년 대종교들과 북로군정서가 힘을 합하였다.

삼일운동 이후에는 김좌진 장군은 북호군정서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아울러 북호군정서 대내에 무관학교 사관연성소를 조직하여 생도 훈련에 돌입했다. 이들 생도들에게 정예군을 양성하는 게 무장투쟁의 당면 과제였다. 1920년에는 연성소에서 사관생 298명 졸업생을 배출했다.

### 연성소에서 훈련된 사관을 북간도에 투입

이렇게 김좌진 장군은 연성소에 훈련된 사관들을 북간도에서 독립운동에 투입시켜 큰 세력으로 부상되었다. 이러한 위협이 고조되자 일본군은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만주지역의 독립군 토벌에 대병력을 투입하였다. 독립부대들은 이들의 정보를 입수하여 백두산 밀영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대 일본군과 마주쳤다. 이 때 일본군과 벌인 전투가 청산리 백운평 전투였다. 이 전투는 1920년 10월21일부터 26일 저녁까지 6일간 싸운 전투였는데, 완루구전투를 비롯해 천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 맹개골 전투, 만기구 전투, 쉬구전투, 천보산 전투, 고동하 전투인데 승리를 이끈 이 전투를 이를 가리켜 청산리 대첩이라 한다.

### 홍범도 장군과 연합하여 전투하여 대승을 거두다

10.21일 백운평 전투에서 200여명의 일본군을 무찌르고 같은 날 오후 홍범도 부대가 완루구에서 일본군 추격부대와 싸워 400여명의 적을 사살했다. 그리고 22일 새벽에 천수평 전투에서는 일본군 기마부대 120여명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10월 22일 어랑촌 전투는 김좌진 부대와 흥범도 부대가 연합하여 대승을 이끈 전투로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승전이었다. 청산리 전투에서 2500명의 북로군정서부대가 일본군 3만여명을 맞아, 사살 1200여명, 중상 2100명과 다량의 무기를 노획하는 등 크나큰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는 동북지방에 산재해 있던 주둔한 일본군 관동군은 크게 타격되자 전세가 위축되는 듯 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앞으로의 희망을 가지고 분열중에 있던 어려움을 털고 일어섰다. 독립단체는 비로소 청산리 전투의 대승리로 인해 결집하게 되었다. 이에 독립단체들은 진지를 북만주에서 러시아 땅인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 당국으로부터 독립군의 무장해제 요구를 받게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좌진 장군은 북로군 정서군을 이끌고 북만주로 돌아왔다. 이때 러시아 땅에 잔류해있던 독립군들은 이들의 무차별 공격을 받아 전멸하다시피했다. 북만주로 후퇴한 김좌진 장군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독립단체들을 모아 재정비하도록 술선했다. 그것이 북만주 흑룡강성 해림시에 ‘신창학교’를 1927년에 설립했다. 학교를 통하여 재만한인의 정신무장은 물론 관내 정보수집을 통하여 안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이기 했다. 그래서 학생 60여명에 교사 몇 명으로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교가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신창 조선족 실험학교’로 57명의 교사와 530명의 조선족 자녀들로 우리말과 한글로 수업을 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지녔던 학교가 바로 김좌진이 세운 학교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결성된 대한독립군단 책임자로서 북만주 대한독립군 단체의 총연합체를 탄생시키고 이에 총재로서 취임하였다. 그해가 1929년인데 이 안에 ‘신민부’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무장투쟁의 강화에 교육과 훈련에 열중했다. 이에 재만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어졌다. 그러므로 김좌진 장군은 한인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

한 버팀목 역할도 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이념적 차이와 투쟁방식에 대하여 반목과 갈등이 싹트는 듯 싶었다.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마침내 1930년 1월 24일 고려공산청년회 소속인 한인공산주의자 박상실의 총에 맞았다. 당시 나이 42세였다.



이에 한족총연합회는 장례절차를 사회장으로 치렀다. 장지는 흑룡강성 해림시 산시진 순흥촌이었다. 후에 김좌진 장군 부인이 중국에 방물장수로 위장해 들어갔다.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왔다. 장지는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에 비밀리에 이장을 했다.

위대한 영웅 김좌진 장군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42년이란 짧은 인생을 바쳤다. 백성들이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또한 봉건제도 엄한 시류속에서 노비를 해방시켰다. 장군으로서 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버렸기에 그는 영웅이었다고 불려도 헤픈 인사가 아니다. 백두산 기슭의 안개를 마시고 배고픈 얼굴이 순국한 그분의 얼굴이 그림다.

## 삼불산의 식물들

삼불산에 자라는 나무들은 밤나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측백나무  
갯버들 박달나무 서어나무 개암나무 참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으름덩  
굴 산수유나무 등나무 산초나무 소태나무 개울나무 화살나무두 고로쇠  
나무 등이다.

## 삼불산에는 마타리

마타리는 우리나라 산과 들 양지바른 곳 어디에든지 자라고 꽃이 핀  
다. 꽃이름이 패장초이다. 황화용아, 야황화, 가양치, 미역취 등으로 불  
리운다. 이 꽃은 군대들이 모여있듯이 무리지어 자라면서 꽃이 핀다. 어  
린 순과 익은 나물로, 살짝 데쳐서 양념을 섞어 먹는다. 뿌리는 두부 썩  
은 냄새가 난다하여 패장(敗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풀은 뿌리를  
약재로 사용했다. 등창과 부인혈(婦人血) 통하는데 효과가 있다.



출처: 국립공원공단

양지바른 곳에서 높이 1미터 ~ 1.5  
미터로 자란다. 원 줄기는 곧게 자라  
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래진다. 보  
통 8월에서 9월 사이에 핀다. 화관은  
노랑색이며 꽃봉오리는 들개처럼 작  
다. 화판은 다섯갈래로 갈라지는데

네 개의 수술과 한 개의 암술이 있다. 한방 및 민간에서는 풀 전체와 뿌  
리를 안질, 화상, 부종, 소염, 대하증에 쓰인다. 삼불산에 키가 큰 마타리  
들은 파수병처럼 높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장군의 꽃 마타리

그대 참 키 큰 위병이로구나  
 장군의 슬픈 넋을 지키는가  
 삼불산 대나무 숲조차  
 목쉴 소리를 듣고있나보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돈은 나누어 쓰라는 지엄한 말씀  
 삼불산 바위에 새겨졌다네  
 내 가슴에도 맑은 종이 올린다  
 슬픔가운데 살아있는 장군의 꽃인가...

## 삼불산의 물길

행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얇은 실개천을 따라 갈산 상촌지역을 지나  
 와룡천으로 흘러든다. 와룡천에서 합류한 물은 다시 천수만 A지구로 흘러  
 서해를 향한다.



홍주 명산(名山) 속의 차원(境界)

남·산



## 홍성에서 가장 인기있는 산 남산



홍성읍 일대

홍성군, 홍성읍에서 가장 매력있고 인기있는 산이 남산이다. 남산은 특출나게 빼어난 산도 아니고 무슨 아롱다롱한 남녀간 사랑의 전설이 담긴 산이 아니다. 그저 거리상 가깝고 가까워서 친근한 벗같은 산이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아주 쉬운 가까운 산이다. 가깝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정

답고 애잔하기도 하고 가슴이 울컥하기도 한다. 이 산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옛날 홍주목 관아가 지금도 정정하게 버티고 있다.

그 관아 옆으로는 복원된 감옥소가 홍주성 안에 당당하게 서있다. 아문 앞에 버티고 서있는 정정한 느티나무 모습은 당당함보다는 어딘가 처연함도 지니고 있다. 이는 천주교 신자를 강제로 끌어들여 배교를 강요했다. 그리고 추문하거나 혹독한 매질을 하여 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가했고 생매장도 했다. 그러다가 목을 베는 참수형도 가했다. 이런 신유박해를 남산은 보았고 그 아픔은 시대와 함께했다.

## 남산 밑에는 역사 인물들이 즐줄이

우리 인간은 양기(陽氣)를 받아야 산다고 믿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남향으로 좌향했다. 사실 그렇다. 모든 창은 남쪽으로 났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남으로 창을 낸다. 남쪽하면 그 무엇인가 그쪽을 향하여 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주택이나 소도시가 있을 때에도 반드시 남쪽을 향한 산을 바라보게 된다.

서울의 남산이 그렇고 개성도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향인 이 남산도 흥성에서 ‘남쪽을 향한 이른 바 남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산 남산이다.

이 산은 팔각정까지가 해발 222미터로 나지막한 산이다. 이 산 아래에는 남산은 흥성읍과 현재의 장곡면과 인접해있고 서쪽으로는 월산이 된다. 남쪽으로는 구항면 보개산과 연결되어 있다. 해발 222로 되지만 흥성읍민들과 구항면 사람들의 자연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특히 남산 아래 읍성이 있다. 읍성 이야기와 관아 이야기는 앞에서 언급했으니 여기에서는 대교 공원 옆 200명의 천주교 순교자를 기리는 성지를 말하고자 한다.

이 성지에는 순교자를 기리는 순교터가 모두 다섯군데나 있다. 이 대교공원에 마련된 성지에는 생매장터로 추정되는 슬픈 전설이 이어져 오는 신앙의 터전이기도하다. 천주교 전파에 노심초사하던 조선시대 박해 초기로 1791~1801년 순교자는 8명이었다. 중기로 보는 1812 ~ 1839년까지에는 순교자는 4명이었으나 병인년 박해(1866~1870)에 이후로는 순교자가 무려 200여명이나 발생,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천주교 대전교구 흥성본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개시 상황이다.

이렇게 순교자 수를 사례별로 보면 교수형으로 100여명, 옥사, 생매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박해받고 순교자로 최후를 마친이들은 진영 동헌의 앞마당에서 가혹한 형벌과 문초를 받았다. 이들은 옥에 갇혀있었

다가 마침내 처형되었다. 이처럼 순교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다. 홍성 천주교 본당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홍주에서 최초 순교자는 원시장(베드로) 홍주 옥천리 출신이다. 옥천리는 현 주소로는 당진군 함덕읍 성동리의 ‘옥정리’이다.

원시장은 1788년 혹은 1789년 55세로 천주신앙에 대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전파하는데 앞장을 섰다. 이러한 천주교 신앙이 널리 선교되자 관가에서 신해박해(1791년) 때 홍주목사가 포졸을 풀어 원시장을 체포, 배교를 설득하다가 듣지 않자 가혹한 매질로 인하여 그만 1792년(임자년)12월 17일 (양력 1793년 1월 28일) 그의 나이 61세로 순교에 이르렀다.

홍성 관아 인근에 다섯군데에 나뉘어 천주교 신자들의 피와 살이 흩어져 그 토양위에 오늘의 천주교 신앙이 뿌리를 내렸다. 전국 각지의 천주교 신자들의 행적을 찾아오는 경건회 회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김좌진



한용운



성삼문



최명



이용노



한성준

## 남산은 슬픈 전설만 있지 않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너머 사래긴발 언제 갈려 하나니

이 시가는 남구만 선생의 작품이다. 남산의 정기 받고 자라난 남구만 선생은 홍성 구항에서 태어났다. 문신이면서 정치가이다. 조선 숙종때의 소론의 거두였다. 젊은 시절 홍성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도시로 학생이 몰리는 이유는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환경 때문이다. 약천 남구만도 서울에 올라 김익회, 이경여, 송준길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이들의 훌륭한 가르침의 훈도에 의해 효종 때(1657)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이 되었다. 하지만 1664년 당시 중전이었던 현종비 명성왕후의 백부 김좌명을 탄핵하다가 파직되었다. 그러나 3년뒤인 1667년 승지로 복직되었다. 연이어 이조참판, 형조참판, 대사성등을 지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여러차례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시조를 남겼던 연유인지 ‘유배문학’파라는 호칭을 부여하기도 했다. 위엣 인용한 ‘동창이 밝았느냐’는 유배지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만은 선생이 약천이라는 아호를 쓰게된 것은 현재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심곡동, 또는 약천동이라 부르는 이 마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삼일서당을 개설하여 인근 마을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육영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바가 많다. 약천은 유배지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삼일서당은 200년간 지속되어왔다. 이 삼일서당은 이 고장 출신인 학자 김남용과 여운형이 운영해오다가 1900년 소위 ‘명진회 사건’이라 하여 일제가 폐쇄시킨 안타까운 사연을 지니고 있어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렇게 훌륭한 행적을 남긴 약천의 탄생설화는 홍성 결성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구항 출생설이 지배적이다. 구항면 내현리에는 ‘약천초당’이라는 생가터를 복원하여 남구만을 기리는 발길도 많다. 약천 선생은

83세(숙종 37)에 이르도록 장수했다. 눈이 밝고 어진 선비였다. 그가 유배문인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의 당쟁사에 ‘내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남산, 그리고 보개산, 그 산이 남산이고 남산이 그 산인 셈이다.

### 남산의 식물들

남산에는 6.25 전쟁 이후 별다를 것 없는 일종의 야산이었다. 우리 온돌방식의 난방문화로 인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나무뿌리, 풀뿌리까지 캐어다 아궁이에 넣었다. 그러니 산에 나무가 남아있을 턱이 없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에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을 추진했다. 사방사업, 나무심기 운동 그리고 입산금지 등으로 지금은 거대한 숲이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무와 외래종이 섞여있어 남산의 토종 나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아쉬운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런 풀숲에 우리 나무가 곳곳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남산의 가을 고마리꽃

도토리, 밤나무, 상수리나무, 산수유, 짚레 산벚나무, 자귀나무, 소태나무, 소나무, 화살나무 보리수나무, 새암나무, 고로쇠나무, 측백나무, 진달래

## 남산의 풀 (클로버=토끼풀)

남산이 양지인지라 산기슭에 토끼풀이 많다. 식량이 모자라고,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했던 시대가 있었다. 일제 식민지 그리고 6.25전쟁중에 가장 인기 좋은 풀이 클로버였다. 이는 토끼를 사용하는데 썸바귀와 더불어 가장 좋아하는 풀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이후 산야의 풀도 씨가 마를정도였다. 비료가 없으니 자연 풀잎 나뭇잎을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했다. 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면직원을 파견했다. 학생들한테 풀을 가져오게 하여 퇴비장에 넣어 발효시켜 비료대신 사용했던 웃지못할 시절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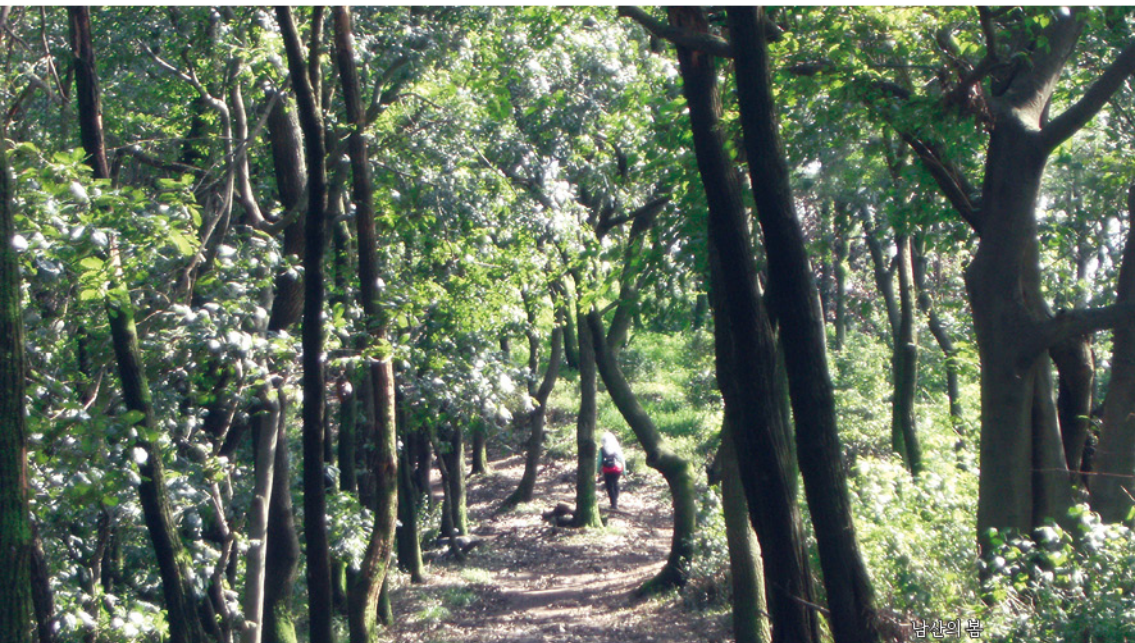
이런 세태에 토끼풀을 뜯어다 토끼한테 사료를 준다는 자체도 사치였다. 토끼풀 꽃은 유소년들한테 인기가 높았다. 토끼풀꽃으로 왕관을 만들었다. 이를 머리에 얹고 다니거나 팔목시계처럼 차고 다닌 추억도 있다. 토끼풀이 작은 꽃송이를 순서에 따라핀다. 이는 오랜기간동안 벌이나 나비가 머무르게하기 위한 생리적 슬책이다.

토끼풀은 곤충들이 꽃에 앉으며 뒷발로 꽃잎을 내리 누르면 꿀이 있는 곳으로 난 입구가 열리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꽃잎을 내리누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진 곤충만이 토끼풀 꽃의 꿀맛을 보게된다. 작은 벌이나 등에 종류는 힘이 부족하여 토끼풀을 맛볼 수 없다. 이 토끼풀 꽃이 지닌 문제를 넘어서는 지혜가 없이 꿀맛을 볼 수가 없다. 토끼풀은 본래 세 앞이다. 때로는 네 앞을 지닌것도 있다. 이 네앞을 행복, 행운을

가져다 주는 매개를 한다. 천주교 패트릭 신부가 세익을 믿음 소망, 사랑의 삼위일체, 천주교 패트릭 신부가 세 익을 믿음, 소망, 사랑 삼위일체와 네익은 행복이라 표현한데에서 유래한다.

클로버는 성장점이 상처를 입게 돼있다. 마치 질경이처럼 밝히면서 살아가는게 운명인지도 모른다.





남산의 봄



남산의 겨울

## 참고문헌

- 내포 옛터 이야기 - 김정현(홍성 문인협회) 2018. 10. 17.
- 내포 옛이야기 - 김정현(내포구비문학 연구소) 2019. 09. 09.
- 월산과 용봉산의 솔바람길 이야기 - 김정현(홍성문화원) 2011. 12. 23.
- 오서산과 석당산의 솔바람길 이야기 - 김정현(홍성문화원) 2012. 12. 26.
- 땅의 역사(상·하) - 박종인(상상출판사) 2018. 11. 15.
- 누가 홍주천년을 맞하는가 - 손규성(열린지성) 2010. 02. 25.
- 수당 전집(1·2·3) - 민족문화추진회 2000. 12.
- 국어대사전 - 이가원 외(민중서관) 1997. 02. 18.
-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7. 02. 03.
- 홍성군지(1925년) - 홍성군 1925. 03. 03.
- 홍주대관 - 홍성군 발행 1989. 12.
- 우리문화재 나무답사기 - 박상진(왕의 서재) 2019.
- 홍주역사기행 - 이재인(홍성문화원) 2019. 12. 30.



##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초판 1쇄 인쇄 2021년 12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21년 12월 30일

저 자 이재인

발행인 유환동

발행처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Tel. 041-632-3613 Fax. 041-633-1199

인 쇄 대한인쇄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84

Tel. 041-632-3390 Fax. 041-633-6200

ISBN 979-11-968976-2-8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을 인용 혹은 전재할 경우에는 저자와 홍성문화원 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충청남도,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 홍주 명산(名山) 속의 자원(資源)



 홍성문화원



791199437624  
ISBN 978-11-069075-2-8

